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주 은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학교 미술교육에서의 추상미술  
감상교육 지도방안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최 은 희

중학교 미술교육에서의 추상미술  
감상교육 지도방안

이 주 은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최 은 희

# 인 준 서

최은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이 추상미술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이를 감상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현대미술에서 ‘추상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은 편이다. 20세기 이후 비재현적인 작품들로 미술작품을 대할 때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이 미술교육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추상화의 이해와 감상지도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실제적이고 방법적인 문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현대미술의 조형미를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향유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중학교 학생들은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발달되고 사회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미술지도 방법은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지도방법이 모색되어야한다. 이에 연구자는 추상회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다.

첫째, 추상미술의 전개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체계를 바탕으로 추상미술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학교 미술에서 감상교육의 지도방법의 필요성과 목적을 알아보고 추상미술 감상의 이해를 돕고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셋째, 창의성과 다양성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습지도안을 구안하려 하였다.

미술의 목표는 자유의지와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성의 발현에 있다. 미술교과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보편성이나 일반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창조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학생들의 미적안목과 조형능력을 육성시켜주는 것이 중

요하며 무엇보다 즐겁고 재미있어야 한다. 수 많은 다양한 시각 정보 속에서 올바른 선택과 선택적 수용을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은 미술표현활동 보다는 미술 감상활동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추상미술 감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미술 감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양한 추상회화의 개념과 표현양식의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추상미술이란 결코 한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았다. 학생들의 사고와 삶은 추상미술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사물을 창조적 시각으로 보게 되고 새로운 미의 발견 및 미적 감각 또한 향상시킬 것이다. 이것을 기초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미술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미술을 생활화 하며 삶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방법 .....	3
II. 추상미술의 이론적 고찰 .....	4
1. 추상미술의 개념 및 역사 .....	4
2. 현대의 다양한 추상 .....	9
III. 감상교육의 목적 및 추상회화 감상교육의 중요성 .....	25
1. 감상교육의 개념 .....	25
2. 중학교 감상교육의 목적 .....	27
3. 추상미술 감상교육의 중요성 .....	31
4. 추상미술교육의 의의 .....	33
IV. 추상미술 감상교육의 지도방안 .....	38
1. 감상교육의 지도방법 및 유의점 .....	38
2. 추상미술 감상수업의 방향 .....	48
3. 추상미술 감상 지도모형 .....	49
V. 결론 .....	63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1> 추상미술의 이해 감상수업 지도목표 .....	49
<표-2> 추상미술의 이해 감상수업 지도내용 .....	51
<표-3> 단원지도 계획안 .....	52
<표-4> 추상미술의 이해 감상수업 평가기준 .....	58
<표 5> 감상보고서 .....	60

## 도판 목차

[그림-1] 칸딘스키, 구성 No.8 (140×201cm/1923)

[그림-2] 칸딘스키, 즉흥 No.31 (145×119.7cm/1910)

[그림-3] 샘 프란시스, 정열 (183×183cm/1990)

[그림-4] 몬드리안, 빨강, 회청색, 노랑, 파랑의 구성 (75×65cm/1925)

[그림-5] 한스 아르프, 우연의 법칙 (48.6×34.6cm/1916~17)

[그림-6] 장 포르티에, 인질의 머리 (27×22cm/1940)

[그림-7] 잭슨폴록, 넘버26A (205×121.7cm/1948)

[그림-8] 아돌프 고틀리브, 연금술사 (711×908cm/1945)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상미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추상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학습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고 공존하는 현 시대에 추상미술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나타나는 추상미술은 교과서에서만 존재하며 실생활과 동떨어진 미술장르라 생각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특정인물이나 고지식한 미술가들이 그리는 그림’ 이라고 틀에 박혀왔던 추상미술을 누구나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능력을 지니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중 하나이다. 추상미술의 조형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으로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의 올바른 감상태도와 이해가 필요하다.

미술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환경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위하여 미적가치를 창조하는 미적 안목을 기르는데 있다. 즉, 미술교육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터득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미적 감수성을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미술교육은 감정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좋은 인간, 풍부한 인간성을 길러주는 학습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미의식이 중학교의 미술교육에서 이루어짐을 볼 때 청소년기에 올바른 감상교육지도야 말로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심미안을 갖게 하여 창작과 관계를 맺음은 물론 실제 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아름다운 심성을 지닌 인격체로 성장하는 기능을 하게 한

다. 그러므로 올바른 감상교육이란 매우 중요하며 오늘날 도시 곳곳에 흔히 볼 수 있는 작품에 대하여 감상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심미안 증대와 함께 조화로운 인간형성을 위하여 더 나아가 미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술시간의 대부분은 표현 활동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표현 활동의 도입부분에서 동기유발, 또는 발상단계에서 조차 미적체험과 감상활동 부족으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내용구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감상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 미술교육에서의 감상능력은 사회생활 속에서 획득될 수 있으나 대체로 그 근본적인 미의식이 중학교의 미술교육에서 이루어짐을 볼 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상교육의 필요성을 갖게 한다. 하지만, 실제로 미술 감상 활동위주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와 미술을 향유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심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수많은 다양한 시각 정보 속에서 올바른 선택과 선택적 수용을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 미술 감상활동에서 이루어 질수 그 중요성이 강조 되어야 한다.

추상미술은 사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비재현적요소로 왜곡시키거나, 단순화, 변형시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처럼 똑같이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얼마나 독창적이며, 창의성 있게 발산할 수 있는가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학생들이 생활에서 접하는 시각 환경들은 구상적인 것보다는 추상적인 것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영상매체에서 소개되는 작품이나 미술관 화랑에 전시된 작품 등, 생활환경에서 접하는 회화 양식 역시 구상적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추상미술의 이해는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 미술과 감상지도에서 취급되어야하는 회화는 재현적인 양식위주이고 추상미술은 이론적인 간단한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 교육의 상황에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경우 외에는 미술교육이 사

실상 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짧은 미술 교육기간과 시대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마주하게 되는 현대미술의 난해함 속에서 최소한 중학교 학생들에게 추상회화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내실 있는 감상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감상 영역에서도 그 동안 소홀히 해 왔던 추상미술 감상수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상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추상미술 감상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추상미술의 이해와 더불어 감상교육을 통한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추상미술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실제적이고 방법적인 문제를 다루어, 효과적인 학습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추상미술에 대한 이론, 감상교육의 내용과 방법적인 면을 각종 논문이나 문헌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미적체험과 감상교육을 중시하는 미술교육의 추세에 발맞추어 중학교의 미술교육을 보완하고 나아가 대처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상수업지도안을 제시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다.

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추상의 개념과 더불어 추상미술의 역사와 교육적 의의를 알아본다.
- (2) 중학교 미술과 수업에서 감상수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알아본다.
- (3) 미술 감상교육의 지도방법을 알아본다.
- (4) 추상미술 감상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창의적인 추상미술 감상수업이 전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Ⅱ. 추상미술의 이론적 고찰

### 1. 추상미술의 개념 및 역사

추상이라는 용어는 ‘축소’, ‘생략’ 등의 뜻을 지닌 라틴어 ‘adstrahere’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는 어떤 대상에서 근원적인 것을 추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특성의 요약, 발췌, 독립시키거나 정비해 가는 작용을 말한다. 고대 아라베스크문양이나 기하학 무늬를 비롯하여 16세기 가장 단순한 선들로 그려진 장식적인 문양을 추상이라 말하기도 하였으며 19세기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대상을 그린 그림, 곧 천사나 환상적인 풍경 등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화를 추상이라 부른다.<sup>1)</sup>

‘추상’이란 어휘는 자연을 재현하지 않는 미술의 양식을 지칭하기 위해 약속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용어로서, 한편에서는 비대상, 비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묘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미술을 가리킨다. 그러나 추상적인 이미지, 즉 삼각형, 원, 사각형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것들이 구상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연을 묘사하지 않는 미술을 지칭하기 위해 ‘추상’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절하게 받아들여진다.

알프레드 바(Alfred Barr, 1902~1981)<sup>2)</sup>는 추상을 ‘자연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될 때 묘사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호한 형태로서 관념이나

1) 유재길, 「추상화감상법」, 서울: 대원사, 1993, p.13.

2) 미국 미술평론가.

상상만으로 존재해 오는 것을 지칭하며 시초부터 자연대상에 의존함이 없는 예술가의 선형적 사고의 소산인 것이다.<sup>3)</sup> 이와 같은 의미의 추상성이 회화에 적용되어, 그 의미도 현실세계를 그대로 화면에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비사실적이고, 애매모호한 형태를 그림 속에 나타내거나 또는 전체의 상 가운데서 특수한 것을 추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철학대사전에서도 추상이란 일반적으로 사물에서 표상되는 모든 징표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를 분리하여 그것만을 독립시켜서 사유의 대상으로 하는 정신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다.

추상미술에서 추상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대상에서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만 파악하려는 추상과, 다른 하나는 구상과 반대되는 말로 대상과는 전혀 무관한 비구상적 성격을 강조하려는 추상이다. 이런 점에서 칸딘스키나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면 그것은 자연적 대상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순수한 선과 색의 묶음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칸딘스키가 화가 자신의 강한 내적 충동을 선과 색으로 격렬하게 표현했다면, 몬드리안은 형태에 있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선과 색의 비례로 냉정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미술사에서 뜨거운 추상과 차가운 추상의 대표적 화가로 불린다.<sup>4)</sup>

이처럼 추상회화는 객관적인 대상을 떠나 주관적 순수구성을 표현하는 관념미술로써 구체적인 형태를 배제하고 선, 색, 형 등의 순수한 조형요소나 균형, 리듬, 통일 등의 조형원리만으로 표현되며, 사물의 환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구상주의는 마치 사진과 같이 복사된 화면의 재현적인 묘사들은 그 자체가 허상이며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반면, 추상화는 눈속임이 아닌 솔직함 그리고 순수 색과 형이 갖는 절대미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또한 전통적 미의식과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난 현대 미술가들의 자유의지는 형태의 왜곡이나

3) 정병관, 「현대 미술의 동향」, 서울: 미진사, 1987, pp.94~95.

4) 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서울: 연화당, 1991, pp.56~60.

파괴, 시점의 다 변화로 자아를 발견하고자 한다. 사물의 근원적인 형태를 발견하고 형과 색이라는 조형요소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획득하기 시작한 추상회화는 여러 가지 미술 사조를 통하여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추상화란 대상의 재현에서 벗어나 작가의 느낌이나 생각 또는 우주나 사물에 있는 기본질서를 순수한 조형요소와 조형 원리로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추상미술은 일반적으로 현대 서양미술로부터 비롯된 미술사조로 생각되지만, 본래 고대 원시 미술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회화나 미학사상에서는 이 추상적 요소들을 일찍이 기원전 수백년 전부터 다루어지고 있었다.<sup>6)</sup>

추상미술은 동서고금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있어온 것이다. 신석기 시대의 고인돌, 선돌도 그 모양을 보면 일종의 추상 조각이며, 바위에 선각화 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 무늬와도 같은 상징적인 패턴도 추상화의 일종이다. 뿐만 아니라 비잔틴 미술의 모자이크, 중세미술의 스테인드글라스도 구체적인 형상보다 선과 색의 신비한 아름다움만 표현한 점에서 추상화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단청도 하나의 추상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상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추상미술의 시발점은 어느 시점부터 잡아야 옳을까? ‘추상미술’ 하면 대체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특정한 경향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강하다. 아마도 20세기 추상이야 말로 현실적 대상을 화면에서 적극적으로 추방하려고 했던 분명한 의식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sup>7)</sup> 사실상 추상미술은 여러 가지 단계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어떤 추상미술은 자연에서부터 ‘추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추상미술은 ‘실제의’ 세계가 그 출발점이다. 미술가는 하나의 형태를 택한 후, 그

5) 월간미술편, 「세계미술용어 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1996, p.348.

6) 최병식, 「미술의 구조와 그 신비」, 서울: 예술과 비평사, 1992, p.68.

7)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서울: 일지사, 2003, p.59.

것에 이미지를 원래의 형태보다 양식화된 유사성만을 지니거나 본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할 때까지 단순화시킨다. 많은 예술문화에서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진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의 서구미술을 지배한 재현의 전통 안에서조차 미술가들은 항상 묘사된 형상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으며 지각된 현실을 미술로 옮겨야 하는 것이 미술가의 역할이라고 인식하였다. 외부세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추상미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이다. 새로운 ‘비재현적’ 방식은 르네상스 이후 한 점 원근법이 지배해 온 재현의 전통에 철저하게 도전하면서 100여 년 동안 놀랄 만큼 많은 방식으로 세련되고 다양해져 왔다. 추상미술의 도래는 회화 자체 내에서 발생하고 있던 변화와도 특히 관계가 깊다. 가장 중요한 것은 1840년대 사진기의 발명이다. 사진기는 외부의 현실을 확신 있게 묘사해 온 미술가들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재고하도록 하였다. 결국 외부세계 재창조라는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많은 미술가들은 좀 더 주관적이고 내적인 현실과 감정에 대한 묘사로 눈을 돌렸다. 예를 들어 “마음으로 그려라.” 라는 폴 고갱의 충고는 미술가가 자신의 내적인 근원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권고라 할 수 있다. 8)

20세기 추상미술로 발전하는 정신적 시조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해 행해진 여러 시도들, 그 중에서도 입체주의가 그 보다 더 현대적인 추상미술의 정신적 시조로 알려져 있다. 먼저, 19세기 말에 세잔은 기하학적인 선과 색으로 형태를 해체하고 이를 다시 원뿔, 원기둥, 구로 구조화 시켜 대상을 표현하였으며, 다 시점적인 시각을 도입하여 상대적 시간과 공간을 그의 화면에 등장시켜 후에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입체파 화가들을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입체주의는 입체파 화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하학적인 추상미술로 발전하여 미니멀리즘으로 이어진다.

---

8) 안나 모진스카, 「20세기 추상미술의 역사」, 서울: 시공사, 1998, pp.7~8.

추상미술로 발전된 또 다른 정신적 시조는 표현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상징주의를 나타내고 있는 후기 인상파의 고갱과 고흐를 선구자로 들 수 있다. 강렬한 색과 터치로 강한 감정을 표현하여 야수파 화가와 독일 표현주의 화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고갱은 모든 형태를 단순화, 평면화 시키면서 사실주의와 유사성이 없는 색채를 사용했으며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작가 내부의 심상과 사상을 그림으로 그려내려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상징주의에 관련된 예술가들의 언급에서 잘 나타나 있다. 회화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재현하는 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내면의 세계, 혼의 영역까지 탐구적인 눈을 돌려야 한다는 데에 그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이 상징주의의 주장이다. 내면세계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여도 사람에게 엄연히 내재해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가시적인 세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상징주의는 특히 야수주의와 입체주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추상미술의 전통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인상파에서 세잔을 거쳐 입체주의를 형성하여 기하학적, 구성적 운동으로 확대되어진 추상파, 인상주의에서 출발하여 고갱과 고흐를 거쳐 마티스의 야수파, 칸딘스키의 초기표현주의에서 다시 표면적 추상으로 확대되어진 초현실주의와도 관계되며 직감적, 정감적이며 곡선적, 장식적이고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표현주의, 비 기하학적 흐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거장들 덕분에 20세기 이후 화가들은 인습적인 구상화를 거부하고 색채와 형태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찾게 된 것이다. 자연을 그린 그림은 마치 사실적인 실제처럼 보이기도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점차 화가들을 자연에서 빌어 왔던 것을 작가의 내부에서 찾게 되었다. 본격적인 추상미술이라 하면 대체로 ‘자연의 모방’ 이라는 전통적인 미술개념이 폐기된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이 제시된 분명한 의식이 대두되었던 20세기의 경향을

---

9) 오광수, 전계서, pp.77~78.

가르키는 주장이 많다.<sup>10)</sup> 즉 추상미술은 20세기 현대문명, 상대성이론이나 정신 분석학 등에 의한 과학적 세계상의 변화, 사진과 영화와 같은 기계이미지에 의한 ‘시각적 리얼리티에 대한 자각’ 등 다양한 현대문명의 전개와 깊은 관계성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추상회화’는 20세기초미술가들에 의해 발생되어 현대까지 발전 되어진 자연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시키고 인간 내면의 감수성, 이성적 논리들을 표현한 회화의 세계라 정의 할 수 있겠다.

## 2. 현대의 다양한 추상

추상이란 현대미술의 한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광범위하며 고도의 정신적 소양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미술양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힘들고, 어렵고, 난해하다 하여 추상회화의 가치를 찾으려하지 않는다면 추상이후의 미술과 앞으로 변화될 미술양식을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20세기 이후 미술의 역사는 추상회화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추상회화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현대 미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은 어렵다. 현대 추상회화의 형성과 발전은 현대 문명의 형성 및 발전과 관계되고 20세기에 부상하기 시작한 현대 추상 미술은 단순한 회화와 조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 전반에 걸친 변화에 깊은 관계를 보였다.

추상에 대한 충동은 외계현상으로 야기되는 인간의 내적 불안에서 생긴 결과로 순수한 본능적 창조력이며 지성의 개입을 배제한 본영적인 필요성을 갖고 창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이 최초에 가졌던 예술적 충동은 자연과 인간의

---

10) 벨 구딩, 「추상미술」, 서울: 열화당, 2003, p.4.

행위, 무한한 긴장, 리듬, 영속성, 그리고 대비 속에서 자신의 반영물을 찾는다. 이러한 모든 형식들의 행위, 무한한 긴장, 리듬, 영속성, 대비 등은 감정의 내적 형식과 유사한 투영물로서 가능하였다. 그것들은 예술의 외적 형식들에 의한 선과 색채, 미술적, 음악적, 시적구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되며 추상충동은 외계의 현상에 야기되는 인간의 커다란 내적불안에서 생겨난 것으로 그 결과 외계와 인간과의 대립에 의해 현세의 형을 초월한 비생명적, 기하학적, 비인간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sup>11)</sup>

이러한 추상미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서서히 양식적으로 형태를 가다듬고 현대의 특유한 표현 형태로 확립해 오늘의 시대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반화 되었다. 추상미술은 자연대신에 인간의 철학과 사유작용을 표현하기 위해 과거 구상적 형상과 단절하였으며 추상형태는 미술과 미술가들을 자연으로부터 해방시켰다. 화가는 눈으로 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을 그려야 한다는 인식으로서 칸딘스키와 몬드리안, 말레비치 등 추상의 선구자들이 있었으며 자연과 무관한 인간의 모든 내면과 감수성,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혹은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의 분출 등을 그들은 표현하게 된 것이다.

### 1) 서정적 추상

러시아 화가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작품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실적인 형체를 완전히 버리고 순수 추상화의 세계를 개척한 최초의 화가이다. 칸딘스키는 「추상과 감정이입」을 발표한 보링거(Wilhelm Worringer, 1881~1965)<sup>12)</sup>를 알게 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재현 회화로부터 우연한 계기로 내적 필연성을 깨달아 자신의 강한 내적 충동을 선과 색으로 격렬하면서도 서정적인, 비구상적인 그림을 그리게 된다.

11) 오병남, 윤자정 공역, 「현대예술 철학의 흐름」, 서울: 예전사, 1996, p.240.

12) 독일의 미술사가.

칸딘스키의 이러한 혁명적인 발견은 우연히 얻어진 것이며, 색채를 단지 색채로 즐기고 형 그대로를 사랑하였다. 그는 ‘[그림-1] 구성No.8’ 과 ‘[그림-2] 즉흥No.31’ 이라는 두 가지 타입의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추상의 길을 열었다.<sup>13)</sup> 그는 순수한 예술가는 자기 작품 속에서 오로지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감정을 표현 한다며 내면의 감정체험을 중요시하여 서정적이며 뜨거운 추상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내적 필연성을 두고 순수 조형요소인 비구상적 회화를 창조한 것이 서정적 추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추상화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칸딘스키는 세 가지 단계를 말한다. 첫째, 외부자연으로 부터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것을 ‘인상’ 이라고 부른다. 둘째, 대개 무의식적이고 자동 발생적이며 내재된 비 물질의 정신적 특성을 지닌 표현으로 ‘즉흥’ 이라고 부른다. 셋째, 장기간의 작업을 통하여 서서히 형성된 순수 조형작업으로 최초의 구상대로 치밀하게 나타내는 이성적 표현을 ‘구성’ 이라고 부른다.<sup>14)</sup>

칸딘스키가 말한 첫 번째 단계의 인상은 자연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 아직 추상화라고 말하기 힘든 초기 단계이다. 중요한 것은 칸딘스키를 비롯한 추상화가들이 자연에서 출발하여 추상화를 제작하였다는 점이다.

추상의 두 번째 단계인 ‘즉흥’ 에서도 칸딘스키는 자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점차 그의 작품은 자연이나 인간의 형상하고는 거리가 먼 추상적 조형 요소들로 화면을 가득 채운다. 우연히 그려지는 선들이나 점, 즉흥적인 행위의 흔적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도 시각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자연의 ‘인상’ 에서 출발한 칸딘스키의 추상화는 ‘즉흥’ 단계를 거쳐 ‘구성’ 으로 이어진다. 무질서하게 나타난 추상적 흔적들은 자연과 완전히 결별하여 인간의 내적인 감흥을 중요시 하게 된다. 점차 후기로 가면서는 자연적 요소가 완

13) 캐롤 스트리랜드, 「클릭,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2000, pp.258~259.

14) 이청자, “중학교 추상화 지도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15.

전히 제거된 차가운 느낌의 구성적 작업으로 변모한다. 철저하게 계산된 수학적 ‘구성’의 추상화는 기하학적 요소들의 질서와 비례, 균형을 중시하며 수평, 수직의 황금 분할과 같은 화면 구성이 엄격하게 이루어진 추상화가 탄생한다. 칸딘스키의 추상화에서는 결코 시각적인 결과만이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은 두 가지 요소 곧 내부(예술가의 감정-비 물질)와 외부(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는 말하면서 정신을 강조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중요시했다. 화면에 나타난 외부는 감각된 것이나 내부는 예술가의 영혼이 담긴 비 물질의 표현으로 감정적이다. 과거의 그림들이 감각을 바탕으로 한 외적인 것에 온 힘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예술가의 감정이 예술가의 감정이 예술작품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아마 자연과 작가의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추상이 이를 해결해 주고 있다고 믿는다.<sup>15)</sup>

샘 프란시스(Sam Francis, 1923~1994) 또한 서정적 기법을 사용했다. 샘 프란시스는 뿌리기 기법을 이용해서 서정적 추상회화의 감미로움을 보여준다. 프란시스 회화에서는 색채 고유의 효율성, 색채의 조화, 빛, 색채의 뉘앙스의 복잡한 놀이는 자동기술법에 의해서 발휘된다. 드리핑기법으로 얼룩, 흘리기, 부드럽게 뿌리기 기법을 이용하고 탐구하는 작가이다.

‘[그림-3] 정열’은 빛의 움직임 느끼게 하고 자연의 음향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순수한 색들의 대비효과에 관심을 두고 하나의 색으로 칠한 색 면들이 동심원이나 꺾음새 표시와 같은 기하학적 형태 안에서 서로 작용하는 시각적 효과를 추구한다.<sup>16)</sup>

칸딘스키 이전의 전통회화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 될 수 있었고, 화가가 무

15) 유재길, 전게서, p.35.

16) 김정원,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타난 추상미술 지도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14.

엇을 그렸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구상미술이 지배하던 당시에 이렇게 회화자체를 표현의 목표로 삼고 새로운 시각예술의 전개를 예시한 서정적 추상의 비전은 시각예술에 있어서 큰 충격이었다.

## 2) 기하학적 추상

독일 표현주의자들이 강렬한 표현을 추구하고 있을 때 1917년부터 1931년 동안 네덜란드의 모더니즘을 이끌어 나가며 미술에서 감정 표현을 억제 하려 힘썼던 인물이 바로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이다. 그가 이끌었던 ‘양식’ 이란 의미에서 ‘데 스틸(De stijl)’<sup>17)</sup> 운동에 참여했던 화가와 건축가들은 순수한 기하학에 입각한 추상을 추구해 나갔다.

미(美)란 자연의 모방만이 아닌 새로운 질서로 순수한 형과 색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갖고 그의 작품을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몬드리안의 초기 작업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초기 그의 작품은 자연풍경과 사물들의 형상을 단계적으로 변형시켜 나가면서 구성적 추상작업을 만들어 나간다. 그는 그의 초기부터 자연을 단순한 선으로 파악하고 입체감이나 3차원의 공간과는 거리가 먼 구성적 질서를 가진 평면 작업에 관심을 갖는다.

1919년 전후로 몬드리안은 일체의 환영을 거부하기 위한 작업으로 처음부터 자연의 이미지에서 출발하지 않은 직사각의 격자 형태로 구성된 연작들을 제작한다. 그것은 흰색이나 회색 등 중간색 배경으로 붉은 검정색이 수직과 수평으로 교차되면서 사각의 면들이 만들어지는 작업이다. 점차 배경은 흰색이나 회색, 검정색과 대비되는 빨강, 파랑, 노랑 등 원색으로 칠해진 직사각형들로 구성된다. ‘[그림-4] 빨강, 회청색, 노랑, 검정, 파랑의 구성’은 탈 자연을 통해 ‘자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추상한다는 것’, ‘실제(Reality)’란 순수 조

---

17) 1917년 미술 저널을 중심으로 모였던 건축가, 디자이너, 미술가, 사상가, 시인 그룹을 지칭하는 말.

형의 세계를 의미하며 이는 바로 순수하고 절대적인 실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이를 위해 자연으로부터 단순화, 양식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직, 수평을 주축으로 한 완전한 추상적 구도의 작품에 이르게 되며 이것이 그가 말한 절대적 실재의 세계가 된다.<sup>18)</sup> 선으로는 수직, 수평만을 사용하고, 운동감을 주거나 균형을 동요시킬 수 있는 사선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 시기의 작품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로 이에 대해 몬드리안은 “모든 그림은 과거나 현재나 선과 색채로 이루어졌으며 화가는 자연에 존재하는 입체의 형태를 캔버스 평면에 축소시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자연의 외형들을 버리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 그림에 나타난 수평과 수직선의 사각형은 어느 것에도 제약받지 않는 자연의 보편적 표현이다” 라고 말한다.<sup>19)</sup>

몬드리안의 수직과 수평 구조 작품은 완전히 대상에서 벗어나 단순한 선과 면 그리고 색으로만 이루어지는 ‘순수 구성’이다. 이 같은 작품에 나타난 검정색의 수평선과 수직선의 구성은 자연을 가장 잘 압축시킨 요약이다. 인간의 의지가 담긴 수직선은 모든 사물을 상징하고, 안정감을 주는 수평선은 수직과 대비되어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의 단순한 기하학 추상은 무한한 우주 공간을 담고 있다. 몬드리안은 “미술이란 자연계와 인간계를 체계적으로 소거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미술사에 기여한 점은 완전한 추상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그는 주관적인 감성을 중요시하는 사조들의 반대편에 섰다는 점에서 미술사에 중요한 인물로 기록된다. 1950년에 들어서면서 그의 특징 있는 작품들은 대중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현대미술의 상징처럼 되었다.

### 3) 미래주의

미래주의는 1909년 이탈리아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이탈리아는 과거의 위대한

18) 이일, 「서양미술의 계보」, 서울: Editions API, 1992, pp.228~289.

19) 이윤구, 「미술실에서 미술관까지」, 서울: 두산동아, 1992, p.380.

유산이라는 짐을 지고 있어 새로운 미술운동을 꿈꾸고 있었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마리네티(Filippo Tommaso Emilio Marinetti, 1876~1944)는 선동적이고 낭만적인 어조로 파리의 ‘르 피가로’ 지에 미래주의 선언문을 실었다. 마르네티는 선동적이고 낭만적인 어조로 기계의 위력에 의하여 출현한 새로운 세계를 환영하면서 과거에 대한 모든 집착을 거부했다. 그는 속도와 애국심 그리고 전쟁을 찬양했다. 그리하여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미술관과 도서관을 파괴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일정한 미의 표준을 모범으로 창조된 미술작품, 즉 루브르 미술관의 관람자들이 찬양한 헬레니즘 조각에 대하여 효율성과 출력이라는 유래 없는 기준에 따라 창조된 공업생산품을 뚜렷하게 대비시켰다. 그리하여 마르네티를 추종하는 이탈리아의 젊은 미술가들이 산업 환경의 주제인 속도를 새로운 이상으로 등장시켰다.

미래주의 특징을 보면 첫째, 원시미술과 기계과학문명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각예술과 문학과 기타예술과의 관련이 있다. 셋째, 정치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정치와 사회에 관하여 극단적 견해의 표방으로 미술과 정치의 결합을 가져와 교훈과 설득이 목적인 미술을 선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모더니즘의 예견이기도 하다.

#### 4) 다다

다다라는 명칭은 1926년 2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결성된 국제적인 전위예술가 그룹이 그들의 화합의 장소인 카페 볼테르에 증축한 화랑을 위해, 시인인 트리스찬 차라(Tristan Tzara, 1896~1963)가 선택한 것이다. 라루스 사전에서 우연히 끄집어낸 단어인 ‘다다’라는 말은 아이들의 장난감 목마를 뜻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 우연적인 발견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의 결과에 대한 부정과 거부라는 의미로 다다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되었으며, 초현실주

의에서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자동기술법의 방법으로도 연결되었다. 다다는 취리히뿐만 아니라 뉴욕, 파리, 하노버, 베를린,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국제적인 반 미학, 반 예술 운동이었다. 20)

사실 다다이스트들에 있어서 추상은 서구 문명에 대한 정신적인 반항을 위해 사용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들은 극단적으로 데생 등 회화의 표현기법을 부정하면서 그린다는 것조차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전통의 파괴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가 추상이었다. 추상을 하나의 혁신적인 표현 방법이었고 삶을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구체적 조형 언어라고 다다이즘 미술가들은 생각했다.

다다이스트들이 창안해 낸 가장 중요한 추상적 표현은 우연히 그려지거나 만들어지는 비조형적 작업이다. 끈 종이를 찢어 바닥에 뿌릴 경우 ‘우연히 만들어진 회화’는 새로운 기법의 추상화이다. 자동기술법에 의해 쓰여진 다다이즘 추상 시나 소음에 가까운 소리의 다다 음악 등은 우연의 미술과 함께 추상예술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분명 색체의 조화나 형태의 구성력을 거부한 다다이즘 추상화는 주제와 형상, 의미와 조형성 자체를 부정한 이단적인 현대 추상 미술의 한 부분이다. 21)

한스 아르프(Hans Arp, 1887~1966)는 나무토막이나 종이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려 우연히 만들어진 구성으로 부조 회화를 만든다. ‘[그림-5] 우연의 법칙으로 배열된 조각’은 그야말로 우연의 법칙에 따라 배열된 콜라주 형식의 작품이다. 이와 같은 기법은 우연성과 무목적성, 반이성적인 성격들이 결합되면서 추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추상화가 등장하면서 구상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는 의식적인 사고로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한 본연의 진실이 눈에 떨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다이스트들의

---

20) 월간미술, 전개서, p.68.

21) 유재길, 전개서, p.56.

작품을 보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떠오르면서 전통과 현실적 표현을 거부한다는 행위와 의식은 무엇보다 깊게 생각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만든 추상적 회화와 오브제 들은 미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점은 자연의 파괴와 개체의 내면세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추상회화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다이스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작품을 아름답게 보여 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대미술의 반항적인 기질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들이 보여 준 우연과 파괴적 성격은 추상적 표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추상 화가들에게 미적 개념과 표현에 자유를 부여하였다.

### 5)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단순한 파괴에 머물지 않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조직하고, 다다에서 시도되었던 모순과 부정을 논리화하고 실천화 한데 있어서 그 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상징주의가 그러하듯이 초현실주의도 어느 한 시기에 일어나 끝난 한시적인 운동이나 주의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하나의 정신영역, 예술 실천으로 볼 수 있다. 환상의 세계, 꿈의 영역, 잠재된 의식의 축적은 미술에 국한 할 수 없고 예술 전 영역에 걸쳐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점으로 본다면 초현실주의는 문학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22)</sup>

초현실주의의 공식적인 출범은 브르통(Andre Breton, 1892~1966)<sup>23)</sup>의 ‘초현실주의 선언’의 발표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언문 가운데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자동기술법이다. 자동기술이란 먼저 순수한 마음의 자동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지에 의해 마음상태가 조정되었는데, 일체 그러한 의지를 배제하고 생각의 참다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다. 즉

22) 오광수, 「이야기 서양미술. 서양미술 이야기」, 서울: 정우사, 1996, p.334.

23) 프랑스 시인.

이성에 의해 관습화된 일체의 제어를 벗어난 심미적 또는 도덕적 일체의 선입관에서 벗어난 사고를 서술하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마음의 순수한 상태를 풀어 내놓았을 때 놀랍게도 잠재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무아의 경지에서 자신도 모르게 펜을 움직이며 자신 속에 내재한 갖가지 기억, 욕망, 희망 등이 자동적으로 구현된다는 것이다.

초현실주의가 조형영역에서 커다란 혁명이었던 까닭은 지금까지는 그림이나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것을 대상으로 했지만 초현실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아닌 세계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것도 꿈, 기억, 환상과 같은 무의식의 세계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상상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인 다른 모든 예술과 깊게 밀착하면서도 무의식에 의한 촉매란 점에선 또 하나의 조형영역 확대라고 말할 수 있다.<sup>24)</sup>

## 6) 앵포르멜 추상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파리는 폐허 위에서도 피카소나 마티스 등 기존의 유명한 화가들을 비롯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추상 화가들로 인해 전후 미술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그 가운데 이른바 비정형을 의미하는 앵포르멜이라는 새로운 추상화 물결은 대단하였다. 이는 기존의 추상화인 기하학적 개념과 차갑고 엄격한 구상화와는 달리 감성을 바탕으로 한 표현성과 행위성을 강조하는 서정적 느낌의 추상 미술이다.

앵포르멜의 양식적 특징은 입체주의 계열의 이성적, 기하학적인 추상에 대한 반발, 즉 비이성적이고 충동적, 즉흥적인 비 형상에 있으며 서정적 추상 또는 차가운 느낌의 기하학적 추상과는 달리 뜨거운 추상이라고 말한다. 앵포르멜은 원칙상 모든 사실적인 형태를 닮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비록 비슷한 사물의

---

24) 오광수, 전게서, p.337.

형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구체적 대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화가가 의도 하였든 하지 않았든 우연히 나타난 이미지는 시각적 재현이 아닌 내적 감동을 주려는 의도이다. 이들은 추상미술은 항상 무엇인가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앵포르멜의 대표적인 화가인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 1898~1964)는 전쟁의 참혹한 기억들의 피상적 묘사보다 인간의 본질을 비정형으로 나타내었다.

‘[그림-6] 인질의 머리’ 를 보면 화면에 두텁게 발라진 면들과 거칠게 그어진 선들은 심화된 체험에 의한 것으로 보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곧바로 전해 준다. 전쟁의 체험과 연관시킨 그의 작품은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인간의 사실적인 묘사보다 더 실감나게 참혹한 전쟁의 본질을 느끼게 한다.

포트리에와 함께 프랑스 전후 앵포르멜의 대가인 장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 는 마치 원시인이나 어린아이가 그린 형상들을 등장시키면서 마티에르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생명감이 담긴 추상화를 제작한다. 반추상적인 그의 그림은 본능적 충동에 귀를 기울이며 인간과 닮은 무의식적 형태가 나타나는 독특한 자동기술법을 발전시킨다. 또한 그는 자아의 모든 것을 추출하고자 하면서 천시 받았던 우스꽝스런 형태들을 부활시켜 생명감 넘치는 순수한 추상표현을 완성해 나간다.

점차 미술의 목표는 시각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고와 지적 체험을 비롯하여 확대된 시각을 모든 사람에게 발견하게 해주는 것으로 확대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렸던 구상화와 달리 앵포르멜 추상화처럼 직접적인 인간의 행위와 과거의 체험 정신적 삶과 명상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시각이 아닌 마음의 감동을 준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미(美)이며 닫힌 정신을 개방시키는 역할로 추상미술이 등장한 것이다. 앵포르멜을 비롯한 추상미술의 다양한 표현양식과 개념은 우리들에게 시각과 사고의 자율성 획득을 비롯하여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하였다.

### 7) 뉴욕파 및 액션페인팅

미국은 비록 짧은 미술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점차 정치, 경제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 역시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려 하였다. 특히 2차 대전 후 미국의 현대 미술은 유럽의 전통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가장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은 전통의 무비판적인 수용보다는 미국의 개혁 정신과 같은 직접적이고 강렬한 미국적 체험을 시각화한 것이다.

1950년대 미국의 현대 미술은 추상이라는 물결을 수용하여 표현의 자유로움과 신사고의 창의를 개개인에게 심어 주었으며 각자 독특한 체험과 내부의 심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회화를 단순한 장식적 대용물이 아닌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담는 그릇으로 생각하였으며 형태는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색채 또한 순수성을 탐구하게 된다.<sup>25)</sup>

추상표현주의는 초현실주의의 오토마티즘의 영향에서 비롯하여 내면세계의 탐구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오토마티즘은 액션페인팅이라는 새로운 회화를 창출해 낸다. 액션 페인팅의 작가로서 잭슨 폴록(Paul Jackson Pollock, 1912~1956)이 대표적이다. 원래 액션페인팅이란 유럽에 있어서 앙포르멜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경향에 있어 추상표현주의로 명명되나 행위자체에 순수성을 부여한다는 방법론에 있어선 비서구적인 미국요소가 농후하게 드러나 있다.

‘[그림-7] 넘버26A’를 보면 물감을 뿌리는 행위자체에 중점을 두어 거대한 화면에 자동기술법적으로 드리핑 작업을 하였다. 작가는 이 행위를 “그려내기 보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제작 방법은 액션페인팅의 대표적인 예이다.

---

25) 이윤구, 전게서, p.393.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는 어떤 양식이나 미학에 구애됨이 없는, 양식에 대한 도전이며, 그림 그리는 행위에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완성된 소산에 의해서보다는 창조행위를 통하여 진실 된 존재를 포착하려는 실존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의 표현상의 특징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행위 자체가 중시된다. 완성된 작품의 미적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장에서 표현할 때의 절실한 행위에 중점을 둔다는 말이다. 따라서 회화가 순수한 행위로 환원될 때, 그 행위의 장인 화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많은 화가들은 초현실주의에서 강한 암시를 받았으며 특히 오토 마티즘의 강조로 전면 균질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형상성의 초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추상표현주의가 취했던 태도는 그 어떤 객관적 형식에 의존하지 않는 주관적인 생각에 의한 어떤 미지에 의해서 표현주의이면서 격렬한 행위적인 액션페인팅을 추구했던 것이다. 액션페인팅은 모든 이미지는 물론 모든 대상을 배재한다. “미국의 새로운 회화는 결코 순수미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재와 싸움에 있어 미학적인 배려는 부차적인 의미밖에는 지나지 않으며, 이들 중에 어떤 것이든 없어도 무방한 것이다. 항상 중요한 것은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는 새로운 의미, 최종적으로 행위와 캔버스 사이의 긴장관계’ 인 것이다.” 26)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은 붓이나 물감 등 한정된 도구나 재료에서 벗어나 막대기나 손가락, 나이프 등 필요하다면 드리핑과 같이 물감을 쏟아 붓는 방법 등 다양한 표현 모색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화가의 내면과 연결된 일관성 속에서 이루어지며 화면구성은 종합적이고 우주적이면서 명상적인 신

---

26) 이일, 「현대미술의 시각」, 서울: 미진사, 1985, p.145.

비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 8) 색면 추상

1950년을 경계로 해서 미국의 추상회화는 두 개의 뚜렷한 흐름을 보이는데 그중 하나는 앞서 살펴본 액션페인팅이고 두 번째 흐름으로 색면 추상을 들 수 있다. 색면 추상은 미국의 회화가 단순히 행위적이며 즉흥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회화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회화라는 지고한 상징물을 설정하여 보다 순수하고 절대적 태도로 접근했으며 초월적 영역의 탐구로서 인간의 궁극적 의미를 암시하려는 회화양식이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뉴만, 로드코, 아돌프 고틀리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색의 표현적인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돌프 고틀리브(Adolph Gottlib, 1903~1974)의 ‘[그림-8] 연금술사’를 보면 즉각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큰 영역에 색을 사용함으로써 눈을 포화시켜야 하고, 드로잉과 제스처의 단순화, 형태와 상징의 제거, 색을 둔하게 하는 명암의 대조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 등을 알게 된다. 27)

이미지는 자필적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일 수 없다는 생각의 자동기술법을 거부하게 되고, 색의 내적 감수성에 따른 작업을 시도 하였다. 이들은 색을 이용해 송고미를 직접 불러일으키고 싶었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큰 영역에 색을 사용하여 눈을 포화하고 그림의 가장자리를 넘어 확장되는 듯 표현하였다. 색면 추상 화가들이 자신들의 극단적인 단순화 뿐 아니라 무한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대한 크기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거대성이야말로 송고함의 한 원인임을 깨닫고 있었고, 거대한 작품들을 제작해 작은 방에 전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까이에서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

27) 계간미술편저,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1987, pp.92~93.

시야를 가득 채워 그림이 자신을 해방시키는 특별한 체험을 불러일으켰고, 그들로 하여금 그림을 보는 것뿐 아니라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어 직접 참여케 하는 놀라운 경험을 일으켰다.

이처럼 표면을 하나의 장으로 보았다는 것에서는 색면 추상 화가들 역시도 많은 액션페인팅 화가들과 비슷했으나, 방법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색면 추상은 윤곽은 그리지 않고 붓 전체로 색면을 완성해 나갔다는 점에서 무척 화려했다. 회화의 색채나 형태의 배열을 뛰어넘어 회화자체의 의미를 갖고 독창적인 추상작품을 창조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다. 절대적 모델 없이 자기 자신에 전적으로 완전하려는 자각 이것이 전후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의 완고하고 새로운 분위기였다.

## 9) 미니멀리즘

미니멀(minimal)이란 일루전(Illusion)의 극소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은 회화의 감동성, 마티에르의 풍부함과 자기표현은 곧 예술이라는 신화를 기본으로 하는 종래의 예술개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모더니즘 화가들이 미술을 그 근본적인 형상으로 축소해 나간 결과 필연적으로 귀착한 귀결점이 바로 미니멀리즘이다.

미니멀 아트는 형태, 공간, 재료, 관객과의 체험을 미술의 본질적 문제로 다룸에 있어 작품의 내용이나 조형적인 요소들을 최소한으로 줄여 현상학의 기본 개념인 물체 자체로 환원시킴으로써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시도 하였다. 이러한 환원성은 기하학적 형태의 기본 형태나 재료 선택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즉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 등의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환원은 감상자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작품의 전체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감상자와 작품간의 본질적인 체험을 유발시킨다.<sup>28)</sup>

미니멀리즘 또는 미니멀 아트와 관련된 명칭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교적 공통적인 특징은 전통적인 조각이나 회화의 개념과는 달리, 최소한의 제작으로써 사물의 존재를 직접 드러내 보이려는 환원적 의지의 결과로 제기된 물체로서의 성격이다. 다시 말해 미니멀리즘은 표현의 주관성을 억제한 미니멀 아트를 통해 원소처럼 궁극적으로 남게 되는 본질적 요소 또는 본질 개념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오브제를 그 성분적 요소에까지 환원하여 보려는 특징을 지닌 예술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루전을 극소화하고 대상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미니멀리스트들의 시도는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철저하게 단순화되고 더 환원 될 수 없는 최소한의 것을 제시하려 함으로써 순수한 대상세계와 요소적인 형태의 현시로 향하는 시각을 열거한 것이다.<sup>29)</sup>

---

28) 김현정, “미니멀리즘 조각의 특성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10.

29) 이정재, “미니멀리즘 조형방법론을 통한 지역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12.

### Ⅲ. 감상교육의 목적 및 추상회화 감상교육의 중요성

#### 1. 감상교육의 개념

예술은 시대적 산물이고 예술은 시대와 역사 배경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했으며 그 시대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예술품을 통해 인간은 과거의 생활과 예술, 즉 과거의 사회적, 정신적, 종교적, 환경적 요소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감상교육은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0)

미술 감상은 미술작품이나 자연의 대상 등 구체적인 대상의 가치에 대해 느끼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미술의 이해와 구분된다. 미술작품이나 자연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작품이나 자연을 감상한다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감상’이란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의 감각적인 형식과 정신적인 내용을 맛보고 즐기는 미적 체험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본래 감상이란 뜻의 ‘appreciation’은 라틴어의 ‘appreciatus’에서 온 용어로 appraise, 즉 ①품질, 크기, 무게 등을 ‘평가하다’와 ②감정하다, 사정하다, 값을 매기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에 미적요소를 향수하는 것만이 평가하는 작용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31)

미술 감상이란 ‘감각과 지각을 통해 미(美)를 느끼는 것, 즉 미적 경험을 통하여 미적감동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미술 감상은 자기 자신을 대상에 투영하여 쾌락, 만족 등의 정서적 요인과 동시에 지적 이해를 통하여 형,

30) 김정희, 「미술교육 입문」, 서울: 형성출판사, 1998, p.228.

31)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서울: 시공사, 2003, p.25.

색, 목적에 대한 적합성, 그 시대성 등을 자기 주관화 하여 미적 가치를 판단하고 향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32)</sup> 또한 감각과 지각을 통해 미(美)를 즐기고 작품의 미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는 내면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sup>33)</sup>

학교 미술교육에서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美)를 즐기는 주관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미학에서 미적 근거를 찾을 수 있게 하고, 비평에서 자신들의 판단을 변론할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작품을 감상에 대해 느끼고 즐기기 이전에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과정이므로 정서적인 면 외에도 인지적인 면도 포함한다. 그리고 미술 작품에 대한 이것은 미술 감상이 미학과 미술사와 더불어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연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술 감상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에 대한 정체성의 전이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 감상은 미적체험과 더불어 작품과 미술현상이 지닌 복합적인 측면에 접근할 수 있는 올바른 분석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미술사의 내용에서는 문화적, 시대적 맥락 속에서 미술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제작된 시대와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술과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작가의 생활 철학과 예술 철학, 작가가 활동하던 시기의 문화적 특성 및 그러한 문화적 배경이 작가에게 미친 영향, 그 시대의 양식 등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사하여 미술 작품의 주제, 시각적 구조 및 표현 기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감상은 아름답고 좋은 점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음미함으로써 개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나 사회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다. 미(美)를 추구하는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표현 활동 뿐만 아니라 감상활동도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미적 감정과 태도가 길러지며, 미적 가치를 얻도록 하고 정의적인 인격

---

32) 안선자, “중학교 미술교과서 감상단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26.

33) 이규선, 「미술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2001, p.180.

을 형성하여 미적 생활을 영위하는 문화인을 길러 미래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미술 감상 교육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교사는 학습자의 지적 수준과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미술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 학습자가 미술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시각적 사고력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미술을 향유하는 능동적인 실천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sup>34)</sup> 이렇게 하여 감상활동을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하여 미술과 가깝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워 생활과 조화를 이룰 때에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개인의 정서를 순화시키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한다. 바로 여기에 감상의 큰 의의가 있겠다.

## 2. 중학교 감상교육의 목적

감상이 대상의 미적 가치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내면화 과정이라고 할 때, 감상교육은 학습자에게 미적 대상과 만남의 기회를 부여하며, 학습자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런 감상교육을 통하여, 미적 대상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평가하는 능력을 육성하며, 환경과 미술문화를 애호하고 창달하려는 태도를 기르게 된다. 이것은 결국 미술의 목적 중 조형 능력과 창의성에도 관련이 있지만 무엇보다 미적 안목 육성과 관계한다.

미술에 있어서 본다는 것은 느낀다는 것과 직결되며, 또 본다는 것은 선택의 심리가 깃들여 있고, 수용의 태도가 있으며 비판의식이 관계한다. 사람들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개성적이고, 작가의 창의적인 눈을 배우며 동시에 미적 감동

34) 신혜원, “ICT를 이용한 중등 미술 감상 연구-한국추상회화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p.5~6.

을 체험하게 된다. 예술작품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는 것을 가르쳐 주며, 나아가 이것은 인간의 정서에 도움을 주어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중학교의 미술교육이 이에 속한다. 중학교 미술교육은 장차 미술가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문화인의 교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탁월한 표현기교보다는 풍부한 창조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손재주 보다는 생각하는 머리가 중요하며, 잘 그리고 잘 만들기 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스럽고 창의적인 표현을 하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감상 활동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의 표현과정과 감상과정 자체를 인간 형성과정과 동일시하여 미술의 제반원리를 교육의 원리로 삼아야한다<sup>35)</sup>

이러한 미술교육의 의의는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시각적 조형물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심미적 태도와 표현력, 상상력, 창의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준다. 따라서 미술의 다양한 체험, 표현, 감상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나타내며, 미술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sup>36)</sup>

감상은 미술 작품을 비롯하여 시각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즐기고 평가하는 활동이다. 감상을 통해 미술 문화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미학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전통 미술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변용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세계화 할 수 있는 자긍심을 길러주도록 한다.<sup>37)</sup>

또한 감상은 하나의 내면화 과정으로서 단순한 감각적 반응이 아니라 감상자의 인격과 상호작용하는 심리적, 정신적인 활동으로 감상은 한 두 번의 시각으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새로운 의미를 갖고 반복적으로 이

---

35) 김재복, 「미술과 수업과 평가」, 서울: 일지사, 1977, p.21.

36)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2007, p.20.

37) 상계서, p.21.

루어진다. 감상은 지성과 감성이 함께 반영되는 통합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감상이 인간을 느끼고 이해하는 즉, 정적, 지적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감상은 항상 주체와 대상의 만남에 의해서 발견해내고, 예술품의 감상자는 예술품에 내재되어 있는 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학습자가 예술품뿐만 아니라 자연물이나 문화품에 내재되어 있는 미를 발견해내고, 결국에는 예술가처럼 주관적인 미에 의해 대상의 미를 발견하게 되므로 감상교육은 중요하다.

로웬펠트 (Yiktor Lowenfeld, 1903~1960)는 미술표현 능력의 발달 단계를 분류하여 중학교 시기는 결정기(The prelod of decision ; 13~17세)로 취급하여 분류하고 있다. 그는 이 시기를 환경을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며 표현유형이 촉각형, 시각형, 중간형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았다. 시각형은 외관의 비례, 명암, 배경, 원근 등을 중시하며, 촉각형은 내면정서의 표현, 색채나 공간 표현이 주관적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up>38)</sup> 이시기의 특성은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유년의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발생하는 변화와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미술에서 창의적 활동에 위기가 찾아오는 때이다. 이 시기는 상징세계에 대한 강한 주관적인 관점이 형성되어 자신에 대한 자각이 뚜렷해지면서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점들은 신체를 더욱 자세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자극하고 자신이 관찰한 것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실제 만들어진 것 사이의 수준 차를 스스로 인지하게 되어 창작에 대한 주관적 태도를 잃게 되고 이는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져 미술활동을 포기하기도 한다. 즉, 본인이 시각적으로 자극 받은 대로 완전한 형태를 표현하고자 갈망하고 추구하려는 욕구에 압도됨에 따라 미술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주변사물을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므로 유년기에 지니고 있던 조사하고, 탐

38) 로웬펠트 브리테인, 서울대학교 미술교육 연구회 옮김,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 미진사, 1998, pp.224~232.

구하고 상상하는 창의적인 능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무하기 위한 교사의 자극과 노력이 필요하다.<sup>39)</sup> 이시기의 표현능력 강조는 그렇지 않아도 실망과 포기의 위험성이 많은 학생들이 점을 감안한다면 표면적으로 확연히 나타나는 표현능력보다 감상교육 확대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보여 진다. 그러므로 추상화 감상교육은 그 표현력의 차이가 극명하지 않다는 연유로 학생들의 실망과 포기가 없는 적절한 수업방식이 되리라 생각한다.

미술교육은 좋은 작품을 제작하는 미술가를 양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감상자로서의 교육도 포함한다. 감상하는 사람도 작품을 제작하는 예술가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sup>40)</sup> 미술교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자신의 환경을 창조 할 수 있는 인간성을 계발하고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런 목표는 교과외의 형태를 벗어나 폭넓고 통합적인 교육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자의 성취도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다양한 형태의 감상교육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시킴으로써 미적 안목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굳이 사실적 외향을 재현하는 교육만큼 미술 감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도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적합하다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감상 교육의 목적이라 하겠다.

미술 감상교육에서는 작품이나 자연 및 조형 환경의 미적 대상에 대하여 감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미적 감성을 육성하고 미의 본연이나 특성 미술품의 미적 문화적 관련을 탐구하고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 감상 지도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로의 작품을 보고, 자기와 친구들의 표현 특징을 발견하게 한다. 둘째, 여러 가지 미술품의 조형 특징을 발견하는 미적 감각을 갖게 한다. 셋째, 자연미와 조형미를 애호, 보

39) 교육부,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7, p.24.

40)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미술 1」, 서울: 교학도서 주식회사, 2001, p.60.

존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미술 작품이나 자연 및 조형 환경 등 미적 대상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미적 감성을 육성하고 미술품의 미적 문화적 가치를 판단하고 창조하는 것이 미술 감상지도의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감상교육의 궁극적인 의도는 자연 및 조형품의 미에 접근하여 느끼고 이해하며, 그것을 생활에 연결 지으려는 태도를 길러주는 일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미술에 관해서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하며,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부단히 연결 짓고, 흡수하는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자연과 미술이라는 문화 역사적, 미적 산물을 매체로 이용하여, 미를 즐기고 기쁨을 얻으며 인간의 지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내면화 과정이다.<sup>41)</sup> 감상의 의미를 이와 같이 볼 때, 감상은 예술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음미하고 즐기는 것으로 단순한 미적 향수와는 달리 적극적인 가치 인식과 가치판단의 작용이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상회화의 감상도 이와 같이 추상회화의 형식과 그 내용을 음미하고 즐기는 활동을 통해 그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3. 추상미술 감상교육의 중요성

오늘날 감상교육은 보다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논의된다. 전통적인 미술교육에서의 감상교육은 ‘정서함양’ 이니 ‘심미적 능력육성’ 이니 ‘고상한 취미 형성’ 등 교양교육 정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보다 예술 본질적인 입장에서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미술 교육에서 중학생의 추상회화 감상교육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

41) 김춘일, 「미술교육론」, 서울: 홍성사, 1984, p.294.

수 있다. 첫째, 추상회화의 감상을 통한 심미활동으로 아름다운 정서와 사상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우수한 예술작품은 감상자의 미적정서를 불러일으키고 감상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감상자의 사고를 다양하게 넓히기 위해서이다. 추상회화에 나타나는 비재현적인 요소를 탐구하고 소통하기 힘든 부분을 이해하면서 감상자는 폭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감상자의 눈은 더욱 확대되고 창의적인 사고를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적 지각력의 신장을 통한 감상자의 시계를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예술 감상은 일종의 인식활동으로 이를 통해 미적 지각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러한 미적 지각력의 신장은 감상자의 시계를 확대케 하여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예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할 수 있다. 넷째, “미술 작품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미술 문화의 의미를 이해한다.”<sup>42)</sup> 감상에서 미술작품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미술문화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추상미술의 감상을 통해 작품이 제작된 시대의 역사적 배경 및 인간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인간정신을 창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상교육의 목적은 감상태도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 중학교 감상교육의 목적은 작품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구하기 위한 태도의 육성에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수많은 시각적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지나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풍경도 있지만 주의하여 볼 때 감각을 통해 사고를 이끌어 내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각적 기호에 의해 이해하면서 살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사람들은 미술에 대해 너무 동떨어진 차원의 세계라는 인식을 한다. 미술이란 미술관이나 박물관 혹은 화랑에 가서 감상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술이란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그 일상과 미술은 떨어질 수 없다. 따

---

42)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7, p.26.

라서 미술 감상과 비평은 이러한 우리네의 삶과 미술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시각적 기호를 정보화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한다.

#### 4. 추상미술교육의 의의

20세기 이후 미술의 역사는 추상이 주류를 이루어왔고 이러한 추상미술은 순수한 시각적인 요소인 형과 면 자체에서 얻어지는 감정만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미적 감수성 계발에 미술역사상 어떤 양식보다도 효과적이며 현대미술에서 아주 일반화된 표현양식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시각 환경에서 추상미술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졌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미술작품을 만나고 있다. 전시장을 찾아 미술작품을 관람하기도 하지만, 굳이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공원이나 건물 앞의 조형물, 인터넷, 영상매체 등을 통해 손쉽게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을 통하여 감동을 받기도 하고 평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미술교육을 받아 왔지만, 현재 우리 미술교육은 기능적 성격의 실기위주의 미술교육에 치우쳐, 학생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점차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게 되어 사물을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흥미를 잃게 되며, 학생들 각자의 개성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다.

추상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언급할 때 정신적인 면에서나 형식적인 면에서나 현대미술에서 추상이 차지하는 위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교육에서 추상미술 지도를 통하여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이방인

이 아닌 그 시대의 중심에서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추상미술은 그 교육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중요성도 다진다. 즉 이런 중요성은 추상미술의 미적 특징에서가 아니라 교육적인 감화력을 통하여 인류를 비물질적인 차원으로 고양하는 한편 창조적인 재능을 발전시키고 강화함으로써 인류에 미치게 되는 유익한 효과라는 가치를 갖는다. 미술의 의미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적절한 관점에 비교해 볼 때, 추상미술은 세계를 조망하는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진다. 그것은 평형감각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방향감각을 자극하며 사고력을 민활하게 만들기도 한다.<sup>43)</sup>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대미술이라는 벽은 전공자도 너무 난해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진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전 세계 인구가 50억인데 이 중에서 같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그 말인 즉 다양성이라는 것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고 개개인의 개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화된 사회와 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교육에서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사회 맥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부한 창조력과 심미감을 길러주고 정신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추상회화 감상교육이다.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목적하는 바인 전인교육을 위하여 정의적 영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인지적 영역, 심미적 영역과 조화를 이루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술교과가 갖는 의미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 정서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미술에 관한 흥미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창의력을 길러 풍요로운 삶을 유지해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어 가는

---

43) F.프라시나&C.헤리슨, 「현대회화의 원리」, 서울: 미진사, 1991, p.219.

것이다. 현대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산업사회는 물질만능과 인간성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미술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인간성장의 기초적인 단계인 학생들에게 감성적 교육을 베풀어, 감성적 정신기능에 의한 정의적 인간성을 육성하자는 것이다.<sup>44)</sup>

성인이 되어가는 준비과정의 중학교 학생들은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발달되고, 사회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훗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될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자극하고 다양한 미적경험을 통해, 감수성을 예민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에 맞추어 창조적 흥미와 개성에 부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창조력이 발달되고 요청되는 시기으로써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추상미술이 차지하는 위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의도적인 추상미술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술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사실적으로 그리는 조형능력과 함께 비대상적인 형태와 색채를 다룰 수 있는 추상적 조형능력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 대상의 본질을 축약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을 비형상학적으로 표출하는 능력과 어떤 대상에서 이미지를 얻지 않고 표현할 이미지를 곧바로 생각 속에서 고안해 내는 능력을 말하는 추상적 조형능력은 모든 시각적 조형 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 교육에서의 추상미술교육은 중요하다.

중학교에서의 추상회화에 대한 교육이 너무 소홀하게 편성되어있고 이를 다양하게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의 미술교육을 개선해야만 한다. 현재 학교에서 표현활동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미술수업에서의 감상부분은 소홀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추상회화 감상수업 시수정도’ 조사에서는 1년에 1시간 이하의 수업을 경험했다는 인원이 57%를 차지해 수업시간의 절대 부족함을 보여줬다. 또한 추상회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원의 48%는 추

---

44) 노부자,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구조고찰”, 한국 조형 학회, 1991, p.2.

상회화에 관심이 없고 배울 기회가 없어서 추상회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나 배울 기회가 없어서라고 답한 29%의 수치를 합하면 77%의 인원이 추상회화 감상수업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교 미술 수업 중 추상회화 감상수업이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조사 결과이다.<sup>45)</sup> 추상회화를 단지 눈으로 본다는 것만으로 그치고 감상 수업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업을 바란다는 것은 억지이다. 이는 미술을 통해 바람직한 감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상미술을 ‘어떻게 감상하고 이해할 것인가’는 지금우리의 생활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미적 안목을 높이는 것이며, 우리 인식에 대한 성찰과 연관되는 것이다. 추상미술지도를 통해 자연과 조형물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생각해 표현활동으로 연계하며, 청소년 내면의 창조적 인간성을 일깨워 미적안목을 높이는 중요과정으로서의 필요와 의미가 있다. 또한 추상미술은 미술 분야 뿐 아니라 현대의 우리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응용되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추상회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상은 추상미술을 특수한 전문가만 이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외면하여 왔고 사회에서 미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희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술교사가 학생들에게 추상미술 이해에 관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추상미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추상미술 작품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미적감수성을 길러 직관적 감상능력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는 추상회화를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하고 사실적 구상회화의 표현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미술에 대한 흥미가 멀어져가는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자유스런 회화라는

45) 권여현, “중학교 미술에서 추상회화의 이해와 감상지도방안에 관한연구”, 2001,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25.

것을 인식시키고 추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향유할 수 있다면 삶의 윤택함을 더 하게 될 것이다.

## Ⅳ. 추상미술 감상교육의 지도방안

### 1. 감상교육의 지도방법 및 유의점

미술교사는 감상지도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 수업에서 미술 감상활동의 교수 과정을 적절하고, 능숙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감상활동의 태도 면에서 수용적 감상과 비평적 감상을, 방법적인 면에서 직관적 감상과 분석적 감상 및 자유 감상과 관점 감상을 그리고 감상대상인 작품의 양적인 면에서 단독 감상과 비교감상, 마지막으로 감상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전체 감상과 세부 감상을 방법으로 들 수 있다. 그 유형별로 각각의 성격과 적용 방법을 알아보고 미술 감상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의미있는 감상으로 미술을 이해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감상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수용적 감상과 비판적 감상

수용적 감상과 비판적 감상은 방법이라 하기보다는 수용자의 태도의 문제이다. 수용적 감상은 감상 작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것은 ‘좋은 작품’ 혹은 ‘좋지 않은 작품’ , 혹은 ‘이 작품은 훌륭한 작가의 작품’ 이니, “이 작품은 국보적인 명작이다” 란 선입관에 의하여 작품을 감상, 수용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작품을 해설하는 교사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데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sup>46)</sup> 즉 ‘이 작품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와 같이 보이는 그대

46) 박휘락, 미술감상과 비평교육, 서울: 시공사, 2003, p.134.

로 설명하는 것이다. 반면 비판적 감상은 그 반대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작품을 대하고 보려는 감상이다. 이것은 작품의 좋고 나쁨을 적극적인 자세로 판단하려는 비판적, 탐구적 태도에 의한 감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무엇 때문에 유명한가’,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등등 무의식적이지만 자기 나름으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작품에 접근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감상적인 태도 면에서 소극적이고 수용적인 감상보다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감상이 훨씬 바람직하다. 감상에서 작가의 권위나 작품을 해설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권위에 그대로 맹종하는 수용적 감상으로는 ‘보는 눈’을 뜨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의 감상은 결코 남의 미감이나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활동이 아니라, 훌륭한 예술작품을 통하여 자기 감각과 시각을 세련되게 훈련시키고 자신의 심적, 지적 내면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야 하는 미적 체험활동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교사는 감상의 대상작품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작품과 직접 마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감각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작품으로 다가가도록 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감각과 사고를 자극하는 촉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학생과 작품과의 대화에 깊숙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학생이 자신들의 감각과 의식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물적, 심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7)</sup>

## 2) 직관적 감상과 분석적 감상

우리가 어떤 미적 대상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이렇고, 저것

---

47) 상계서, p.135.

은 저렇기에 아름답다' 하고 관련 요소들을 따져서 이루어지는 심적 반응 때문만은 아니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작용 없이 직접적이고 감상적으로 편안하게 대상의 전체와 접하는 가운데에서도 즉시적으로 또는 직감적으로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각적인 미술작품은 감각적으로 바로 대하자마자 강한 감동과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비교적 주관적이지만 곧 작품이 지닌 미적 가치의 평가까지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것이 직관적 감상이다. '직관'이란 이성적 사고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일어나는 인식 작용이다. 직관력에 의해서 얻는 감동과 평가는 감상자의 풍부하고 예민한 감수성과 미적 정서, 그리고 수용자의 예술관이나 인간관 등을 바탕으로 한 전인격적인 배경과 미술작품의 조형적 특성이 서로 교감했을 때 얻는 쾌감과 판단이다.

직관적 감상을 지향하면서도 그 바탕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적 정보의 도움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가치까지도 캐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품이 품기는 조형상의 48)구조적 특성에서 받는 감동을 '감성적 감동'이라 한다면 획득된 지적 정보에서 발동하는 감동은 '지적 감동'이라 할 수 있다. 미술작품에서 얻는 감동은 감각상의 조형적 형식에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사상적 배경이나 당시의 사회적 맥락 등에서도 향수자의 감동을 자극하고 깊은 사색에 젖어들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직관적 감상과 대개념이라 할 수 있는 '분석적 감상'이란 미술작품의 색, 형, 질 등과 같이 조형적 구성 요소들을 들어내어서 분석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하나의 미술작품을 볼 때 분석적 요소별로 따져보는 것으로 작품을 객관적으로 천천히 감상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분석요소는 형식상의 조형적 특질이 중심이 될 것이다. 분석하는 그 요소는 작품의 소재들과 주제, 조

---

48) 박휘락, 전게서, p.135.

형요소나 조형 원리적인 처리 방법, 그리고 사용된 표현재료와 그 취급 기술 등이 주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다른 개념으로 말해서 ‘분석 관점’ 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관점에 따라 분석할 때 분석 대상으로서의 각 요소들은 하나의 작품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작품 전체 속에서의 요소이며 전체와 유기적인 관계에서 존재하는 요소들이기에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감상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할 때 직관적 감상과 분석적 감상의 바람직한 관계는 직관적 감상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분석적 감상을 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상은 지적 활동 요소가 강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성적 측면이 더 진하게 작용할 것이고, 미적 대상을 접하여 심적 현상으로서 먼저 일어나는 것은 감성적 인식 작용일 것이며, 그것은 보다 순수한 미적 체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감상을 지도할 때 미술작품을 접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학생들의 미적 반응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존중한다는 교사의 마음가짐을 학생들이 알아차리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교사는 학생들이 작품을 보고 자기 감정을 계발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그런 뒤, 그러한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까닭을 말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까닭을 말해보게 한다는 것은 직관 속에 분석을, 그리고 분석 가운데 직관이란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sup>49)</sup>

### 3) 자유 감상과 관점 감상

자유 감상은 용어 그대로 아무런 제약이나 관점 없이 자유롭게 미술작품을 대하여 느끼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점 감상은 이와는 달리 작품을 보는 관점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

49) 박휘락, 전게서, p.137.

미술가들은 개성적인 예술관이나 미의식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재료와 도구, 그리고 기법과 형식 등에 의하여 실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미적 특성과 생명을 가진 하나의 미술작품이 탄생되는 것이다. 특히 시각적인 작품에서 재료와 기법, 형식 등은 미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지어 주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미술작품의 감상은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관점’을 분석적으로 보는 데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관점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익히 알다시피 조형요소와 조형원리들에 의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작품을 볼 때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들에 의하여 보는 것이 의미에 접근하기 용이하다. 감상자가 보는 도구로서 동원하려는 관점이 작가의 의도와는 어떤 관련을 갖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나타났는가, 또는 각각의 요소들이 전체와 유기적인가를 잘 살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러한 분석 관점은 항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성 속에서 조화적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유의하여 보아야 한다.<sup>50)</sup>

#### 4) 단독 감상과 비교 감상

단독 감상은 감상 대상의 양적인 면에서 한 개의 작품을 취급하든지 또는 같은 요소와 특질을 가진 작품만을 제시해두고 감상하는 방법이다. 어떤 특정 작품의 가치 평가나 감정(鑑定) 등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감상 교육에 있어서도 취해질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다.

비교 감상은 단독 감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방법이다. ‘비교 한다’는 것은 첫째 두 대상에서 주로 공통되는 성질, 즉 유사점을 지닌 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은 이와는 달리 두 가지 대상에서 주로 상반되는 성질이나 차이점을 끄집어내어 그것들의 특성

---

50) 박휘락, 전게서, p.138.

을 설명하는 것을 ‘대조 한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교’ 와 ‘대조’ 는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 이러한 차이를 반드시 구분할 필요 없이 우리들은 이 양 쪽을 모두 비교라 부를 수 있다.<sup>51)</sup>

미술작품의 감상이나 가치 판단의 비평학습에 적용되는 ‘비교’ 감상법은 작품의 주제 내용이나 조형적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처리 방법, 그리고 재료와 용구의 사용, 작품의 양식, 제작 연대, 진위 등을 비교 관점으로 설정하여 두 대상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상호 비교 감상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법은 작품의 특질을 발견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교의 기능은 연구 대상이 타와 다른 점, 또는 그 특수성을 한층 예민하게 부각시키든지, 혹은 그 내적 친근성을 명확히 해주는 데 있다. 즉 비교법은 감상이나 비평에 있어 두 작품 사이를 한층 뚜렷하게 분리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욱 가까이 접근시킨다. 이와 같이 비교의 중심적 역할은 ‘발견적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비교와 대조의 관점은 미술작품을 분석하거나 비평, 감상할 때 적용해보면 작품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내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물론 미술작품을 항상 이렇게 이원적으로 보자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의 조형작품에서 대립적인 형식과 의미를 추출해서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작품이 지닌 양상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장치로서 가능한 것이다. 이외에도 생각해 보면 명/암, 대/소, 장/단 등도 분석의 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비교’ 감상법은 비교되는 두 요소의 상대성을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기에 그 우열이나 특성, 그리고 차이점과 유사성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켜준다.

비교 감상은 비교해 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비교법은 대상의 특질을 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질을 ‘해석’ 하고 ‘판단’ 하는 활동에 있어 하나의 기술이다. 한 작품을 다른 한 작품에 대비시켜 보

---

51) 박휘락, 전게서, p.140.

는 가운데 얻은 자료에 의하여 감상 대상이 지니고 있는 본질로 접근해 들어갈 때 귀중한 단서를 모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교 감상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와 단서들은 대상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며 조형적 특성을 밝히고 의미를 해석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가 처음으로 대하는 작품의 미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라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 길은 학생 주체가 획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단독과 비교의 두 감상법을 학생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각각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독 감상은 비교되는 상대가 없기에 대상 작품 자체에서만 감상의 자료를 얻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창작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좋고 나쁨을 판단 내리기 위한 자료가 풍부치 않으며, 다른 작품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놓여 있는지도 규정하기란 곤란한 것이다. 만약 학생들에게 특정한 하나의 작품을 대상으로 감상시켜야 한다면 그 적용 대상은 어느 정도 감상력이 발달되어 있는 수용자들이어야만 할 것이다.<sup>52)</sup>

##### 5) 전체 감상과 세부 감상

감상은 또한 시각적인 대상 작품에서 평면적인 회화나 입체적인 조각을 전체와 세부로 나눠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미술작품을 대할 때 먼저 전체를 직감적으로 보고 다음 세부로 눈을 돌려 감상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보다 의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로 전체 감상과 세부 감상이다.

전체 감상은 작품을 대하여 먼저 직감적으로 작품 전체를 보아서 초발적인 느낌을 갖거나, 또는 작품의 소재와 주제, 그리고 재료와 방법, 표현 양식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을 보다 의도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1차적으로는 작품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 감상의 교수-학습에

---

52) 박휘락, 전게서, pp.141~142.

서 도입단계나 본격적인 감상으로 들어가는 ‘전개’의 초기단계에서는 이런 전체 감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부 감상은 작품의 세부를 부분적으로 살피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감상 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감동을 자아내기 위하여 어떤 의도에 따라 작품의 세부를 명료화하여 보이는 것이다. 다음 한 목적은 대상 작품을 보다 심도 있게 살피고 분석하며, 그 특징을 맛보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전자는 주로 감상의 도입 단계에서, 후자는 본격적인 감상 단계에서 행해진다고 볼 수 있다. 세부를 살피는 보다 본질적인 의도는 특히 표면 질감이나 붓의 사용 방법, 또는 작품 세부의 구성적 밀도 등을 느끼고 이해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작품의 생명은 전체의 구도와는 별도로 세부에 숨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감지할 수 없으나 어떤 세부를 분석해 보는 데 의해서 표현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고 풍부한 미적인 특질을 볼 수 있다. 53)

## 6) 감상교육의 유의점

미술 감상지도에서 교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특히 교사의 지도 관점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감상지도에서 유의해야 할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상지도는 통합적인 지도가 되어야 한다. 지적, 감상, 미적 감상뿐만 아니라 미술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태도와 연결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 태도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미적 안목과 조형능력, 창의성을 기른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미적 대상을 찾고 그 미적 가치를 발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감상지도는 토론과 언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친구들의 작품이나 우리

---

53) 박휘락, 전개서, pp.144~145.

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작품에 대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 판단과 평가를 이야기하고 글로 표현하여 서로 토론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객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경청하며 작가의 의도와 표현방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자기 경험화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감상지도는 발달 단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드너(Howard Gardner, 1943~)<sup>54)</sup>에 의하면 학생들의 미적 인식이나 감상 능력도 미술 표현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발달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적기 교육은 학생들의 발달과정으로 보아 그 학습내용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도하는 교육을 말한다. 새로운 학습과제에 대하여 학습자가 유효한 학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 요소를 갖춘 상태를 말하며 그런 적기의 감상 교육을 위해서 먼저 발달과정을 알아야 가능하다. 넷째, 감상지도는 생활과 관련시켜 지도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기간도 그들의 삶에 연속이다. 그 기간은 미래를 위한 대비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잠자는 시간외에는 모두 시각적 현상에 접하게 됨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시각적 현상을 즐기고 미적 대상을 발견하며 미적 가치를 느끼고 개선하도록 하는 관점으로 감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감상지도는 미술문화를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수업 방향 역시 그에 걸맞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작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감상 관점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미적 대상을 보고 이해하며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감상 지도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 과정상의 감상 영역의 내용에서 미술품 감상을 통해 학생들의 비평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품을 무조건 많이 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작품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를 학습 목표에 비추어 생각해 보게 하

---

54) 미국 심리학자, 하버드대 교육학부 교수

고, 이에 기초하여 감상 관점을 선정해 보도록 함으로써 감상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감상해야 할 작품의 성격에 따라 교사가 작품의 감상 관점을 칠판에 제시하고, 이에 비추어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상 관점은 작품의 특징 또는 수업의 목표와 관련지어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일곱째, 미술 용어를 이해하고, 감상할 때에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고등학교까지 미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미술 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미술 용어의 폭을 넓혀서 학생들에게 미술품 감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감상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한다. 여덟째,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미술품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특별히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장 등을 찾아가야 하지만 여건상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의 미술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적다. 실제로 학생들이 미술품을 감상하는 경우는 미술 교과서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물보다도 훨씬 작게 평면으로 감상하는 미술품은 감상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미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감상 교육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아홉째, ‘미적 체험’ 및 ‘표현’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감상 활동을 미적 체험 활동과 연계시킴으로써 미적 감수성과 판단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한다. 감상 지도는 별도의 감상 시간에만 지도하기보다는 미적 체험 활동과 표현 활동 과정에서 수시로 관련지어 지도함으로써 감상의 효과를 높이며, 특히 표현 활동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감상을 통해 고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한다.

## 2. 추상미술 감상수업의 방향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추상미술 감상 지도방안을 통해 효과적인 추상회화에 대한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마음의 눈과 자유로운 세계로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그들을 발전시킬 것이며 추상회화의 미적 시각 표현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자기표현의 길이 넓어질 것이다.

중학교 학생들의 일반적인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조형언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시기이므로 추상회화를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조형요소와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올바른 감상 학습이 진행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학습되는 감상수업을 통해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미술과 감상 교육에서는 구상적인 면에만 치우친 한정된 시각을 요구하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추상회화의 감상에 적합한 지도 방법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추상회화 감상 능력을 신장 시켜야 한다. 즉 감상활동을 통하여 추상회화의 형식적 구조와 정서적 특성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감상수업에서의 중요한 초점은 학습자가 미술에 대해 관심을 갈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며 그 토대는 어디까지나 학습자가 가지는 미술에 대한 관심 여부이다. 또한 미술 감상에 있어서 무엇보다 바람직한 일은 원작을 보는 일이나 원작은 상황에 따라 제약이 있으므로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sup>55)</sup>

중학교 미술교육에서는 사실적 형태를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흥미를 잃게 하기 쉽다. 따라서 구상회화 보다는 추상회화가 비교적 적합하다고 보고 지도과정에서 교사는 사물을 보는 관념적인 시각을 버

---

55) 김래원, “중학교 미술교과과정에서의 한국화 감상법 연구-추상회화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40.

리고 학생 스스로 관찰되는 대상을 자유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3. 추상미술 감상 지도모형

#### 1) 추상화 감상 단원 설정 취지

현대미술은 해를 거듭할수록 복잡성을 더해간다. 그것은 그만큼 현대사회가 점차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이유에서이다. 이런 복잡성은 현대 미술을 난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이 난해성은 현대미술과 대중과의 거리감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미술을 즐겁게 이해하고 그래서 더욱 흥미를 증폭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미적 감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미적 비판력을 개발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어쩌면 이런 바탕은 일찍이 감성 형성시기의 사회 구조적 배경과 관련된 교육환경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장치는 결국 교육이 감당하여야만 할 문제가 아닐까 한다. 현대 사회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시각문화가 지배적인 모습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 정보 산업 사회를 관통하는 오늘날 시각 미디어의 일상화라는 현상은 우리의 정서에 무차별적으로 호소하고 무비판적으로 파고든다. 이런 일련의 문화현상의 세계화 속에서 우리의 미술교육이 감당하는 위상은 날로 무뎌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시각 문화를 대응하는 새로운 감성 교육이 가능한가 알아보고자 한다.

현대미술을 차지하고 있는 한 영역이면서도 다수의 일반인으로부터 거부감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을 가지고 추상화를 감상할 시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함양 시켜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추상회화 감상시간은 서양미술의 추상회화를 통해 학

생들은 무언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 비평적 관점으로 자신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일상적인 환경을 비평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예술가들의 태도를 배우고 그것을 학생 자신의 생활에 직접 응용해 봄으로써 습관적으로 보아오던 시각에서 벗어나 대상을 새롭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단원의 설정이유는 현대미술의 시발이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상회화’ 이해를 위한 감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추상회화를 쉽게 감상 할 수 있게 하여 이로 인한 미술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수용태도를 기르기 위해 본 단원을 설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현대미술의 이해와 관심으로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에 현대 미술의 조형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업에 다각도로 응용될 수 있도록 본 모형에 따른 해당 단원을 설정한다.

## 2) 학습목표 및 지도목표

### (1) 학습목표

- 가. 서양 미술 중 추상미술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감응할 수 있는가를 느끼고 탐구한다.
- 나. 알려진 명작을 감상하고, 작가의 개성과 우수성, 예술적 가치를 알아 볼 수 있다.
- 다. 작품을 비교감상하며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 할 수 있다.
- 라. 작품에 대한 감상활동을 통해 작품 내 조형미를 관찰해보고 판단하여 자신의 느낌을 말할 수 있다.

## (2) 지도목표

### 〈표-1〉 추상미술의 이해 감상수업 지도목표

관심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많은 양의 추상작품을 제시 후 감상하도록 하여 관심도를 증가시킨다.</li> <li>2. 추상회화의 단계를 인지시켜 관심도를 향상시킨다.</li> <li>3. 작가별 추상화의 비교감상을 통하여 관심도를 증가시킨다.</li> </ol>
이해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상회화 발생과정의 학습으로 이해도를 증가시킨다.</li> <li>2. 추상회화의 전개와 현대미술의 관계를 학습하여 이해도를 향상시킨다.</li> <li>3. 각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감상 함으로써 이해를 돕는다.</li> </ol>
학습욕구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시하여 학습욕구를 유발시킨다.</li> <li>2.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유도하여 학습욕구를 증가시킨다.</li> <li>3. 관심도와 이해도의 증가가 향후 학습욕구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li> </ol>

## 3) 지도상의 유의점 및 지도내용

### (1) 지도상의 유의점

- 가. 감상학습은 이미 표현학습 시간과 연계되어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타 과목과 별개가 아님을 주지시킨다.
- 나. 미술 감상은 학습의 형태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삶의 한 모습이란 사실을 일깨운다.
- 다. 서구 미술품들의 미적구조를 이해하는 데 배타적인 국수주의적 입장이나

심정적인 해석으로 인한 신비적 의미 부여를 경계한다.

라. 미술품의 이해는 항상 인류의 삶이라는 토양에 기본을 둔 삶의 양식사인 점을 주지시킨다.

마.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둘러볼 때 항상 메모의 습관과 자료 조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바. 잦은 발문을 통하여 학생사고의 질을 높인다.

## (2) 지도내용


〈표-2〉 추상미술의 이해 감상수업 지도내용


학습내용	학습활동	학습자료
1. 추상화의 개념과 이해 2. 구상회화에서 추상회화의 전개 3. 추상미술의 비교감상 - 칸딘스키 vs 엘리씨츠키 - 몬드리안 vs 피터헬리, 잭슨 폴록 vs 알베르트 윌렌 4. 추상미술의 비교감상 후 이해 5. 수업결과 평가 6. 정리	1. 구상회화와 추상회화의 차이점을 알고 추상화의 개념을 인식시킨다. 2. 추상회화의 전개를 이해시킨다. 3. 칸딘스키, 몬드리안, 잭슨 폴록의 작품 제작의도, 방법, 구상에서 추상으로 변하는 과정 감상. 4. 작품을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감상 해본다. 5. 학습활동을 반성하고 수업내용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교사- 교과서, 도판, 슬라이드, PPT  학생- 필기도구,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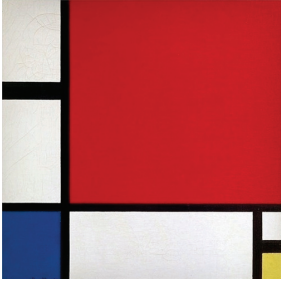


#### 4) 추상회화 교수-학습 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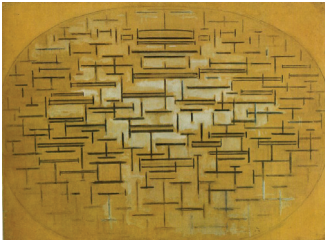


〈표-3〉 단원지도 계획안

본시(1/1)차시 교수-학습안							
단원	3.감상 미술의 발자취-서양 (서양의 추상미술)		대상	중학생	장소	미술실	
학습 목표	1. 추상미술의 흐름을 알고 이를 통해 현대미술을 얘기할 수 있다. 2. 알려진 명작을 감상하고 그 현대 추상미술과 비교해 본다 3. 추상미술 작품을 알고 작가의 개성과 우수성을 알 수 있다.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학습형 태	학습자 료	지도상 유의점 및 도달점	비고
		교사	학생				
도입 (5분)	출결확인  본시학습 확인  학습목표 제시 학습절차 안내	-출결확인 및 인사  - 추상미술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추상회화는 무엇이 있을까?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학습절차를 안내한다.	-인사  - 고정된 형태나 색채의 이미지를 벗어나 형태의 기본요소와 순수성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기법을 표현하는 것  -학습목표를 인식한다.	전체학 습	PPT자 료	추상회화에 대하여 궁금증과 수업동기를 부여시켜 주의집중 할 수 있게끔 한다.	
전개	추상화의 이해	-모던 아트의 시작을 설명한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생활과 사고방식의 변화로 예술분야도 새로운 사조가 많이 생김.)	-모던아트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교사의 설명을 듣고 미술사의 흐름을 정리한다.	전체학 습	PPT자 료		

전 개	추상화의 이해 (20세기 양 미술의 양식 및 특징을 간단하게 제시)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상미술의 흐름을 설명한다. (대상과 똑같은 색채로 그려질 필요가 없다는 야수주의, 전통적인 회화 규칙에서 형태를 해방시킨 입체주의를 설명한다.)</li> <li>- 현대미술의 특징과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대미술을 이야기 해보라한다.</li> <li>- 그림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상회화의 역사적 흐름과 개념을 인식한다.</li> <li>- 알고 있는 현대미술과 주변에서 본 현대미술품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li> </ul>	전체 학습	PPT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상영역과 범위가 방대하므로 시대별, 유파별로 대표 작품만을 선정하여 감상하도록 한다.</li> </ul>	
	칸딘스키의 그림 감상 (최초의 추상화가)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낌 질문하기</li> <li>- 무엇을 그린 것일까?</li> <li>- 확실한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표현을 봤을 때 활기차고 생명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li> <li>- 칸딘스키는 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고 왜 이 사람이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을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낌 얘기하기</li> <li>- 무엇인지 알기 힘들다.</li> <li>- 즉흥적이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강한 느낌이 든다.</li> </ul>	전체 학습	PPT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칸딘스키의 유명한 작품들을 보여준다.</li> <li>- 학생들이 자료를 잘 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li> </ul>	교과서참고

<p>전 개</p>	<p>칸딘스키에 대한 이해와 다른작품과 비교감상 설명 (5분)</p>	<p>-칸딘스키가 최초로 추상화를 그린 계기(칸딘스키는 우연히 자신의 그림이 거꾸로 되어있을 때, 뚜렷한 형태가 없이 색채만으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경험하여 추상의 길에 들어선다.)</p> <p>-칸딘스키의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대상을 닮게 그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p> <p>-비교할 그림제시</p>  <p>-칸딘스키의 작품과 엘 리치 스키의 작품을 비교하며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해본다 (칸딘스키의 그림의 색채와 형태는 동적이고 음악적 요소를 느낄수 있지만 엘씨츠키의 그림은 구조적이고 직선적이다.)</p>	<p>-그림과 설명을 듣고 메모 정리한다.</p> <p>-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p> <p>-궁금한 것을 질문한다.</p> <p>-칸딘스키의 작품과 엘리씨츠키의 그림을 비교 감상해보고 다른 점을 찾아본다. 각자가 느낀 다른 점을 이야기한다.</p> <p>-두 작품을 비교감상한다.</p>	<p>전 체 학습</p>	<p>P P T 와 프 린 트 물</p>	<p>-교사의 설명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한다.</p> <p>-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한다. (이해도 확인 필요)</p> <p>-작품을 비교감상하며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찾아본다.</p>	
------------	--	---	--	---------------	------------------------	--	--

전 개	<p>몬드리안의 작품 감상 (5분)</p>	<p>-다음 그림제시</p>  <p>-느낌 질문하기</p> <p>-추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앞에서의 칸딘스키와는 다르다. 무엇이 다를까?</p> <p>-몬드리안은 왜 선과 직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렸을까?</p>	<p>-딱딱하다. 차갑다</p> <p>-알기 힘들다.</p> <p>-칸딘스키와 달리 이것은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이다.</p> <p>-몬드리안의 작품과 앞의 칸딘스키작품과의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본다.</p>	전 체 학 습	P P T 자 료	<p>- 몬드리안의 '구성' 시리즈를 보여준다.</p> <p>-모든 학생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p>	
	<p>몬드리안에 대한 이해감상설명 (5분)</p>	<p>-몬드리안이 추상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나무 연작 보여주기)</p>  	<p>-교사의 수업내용을 듣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정리한다.</p> <p>-교사의 질문에는 대답하고 모르는 것에는 질문한다.</p>	전 체 학 습	P P T 자 료	<p>- 몬드리안의 나무 연작 시리즈를 보여준다.</p> <p>-교사의 설명을 잘 듣고 있는지, 잘 이해하는지 확인한다.</p>	

전 개	몬드리안과 피터헬리의 작품 비교 (5분)	 <p>-몬드리안의 작품과 피터헬리의 작품을 비교감상하며 비슷한 점을 이야기해본다.</p> <p>-비교할 그림제시 피터헬리의 그림과 몬드리안의 그림을 비교 감상한다.</p>  <p>-다음 그림제시</p>	-몬드리안과 피터헬리의 그림을 비교 감상하며 비슷한점과 다른점을 이야기해본다.	전 체 학 습	-학생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 한다.	교과서 21p 참고
	잭슨 폴록의 작품 감상 (5분)	 <p>-느낌 질문하기</p> <p>-무엇을 그린 것일까?</p>	-강하고 격렬하다 -무엇을 그렸는지 알기 힘들다	전 체 학 습	P P T 자 료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수 있게 한다.

<p>전 개</p>	<p>잭슨 폴록에 대한 이해 및 알베르트 윌렌의 작품과 비교 감상 (5분)</p>	 <p>-자신의 감정을 색채를 통해 표현하기 위한 제작방법을 개발</p> <p>-기존의 이젤을 버리고 뿌리는 작업방식(액션페인팅, 이는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캔버스에 쏟아 붓고 싶은 것임을 강조)</p> <p>-알베르트 윌렌의 그림과 비교 감상 해본다.</p>  	<p>-중요한 것을 요점 정리 기록한다.</p> <p>-자신의 생각을 적는다.</p> <p>-잭슨 폴록의 작품과 알베르트 윌렌의 그림을 비교 감상한다.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본다.</p>	<p>전 체</p>	<p>P P T 자료</p>	<p>-잭슨 폴록의 다른 작품들을 잘 볼 수 있도록 한다.</p> <p>-학생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p>	<p>교 과 서 참고</p>
------------	---	--	---	------------	---------------------	---	-------------------------

정리	추상회화의 감상이 해 정리 (5분)	<p>-20세기 미술은 다양한 개성과 주관을 표현하는 미술로 발전하고 있다.</p> <p>-미술은 외부의 가시적 현실보다는 내부의 감성에 의존해야 한다 (“화가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려야 한다.” -피카소-)</p> <p>-수업을 마무리하고 마친다</p>	<p>-추상회화의 흐름을 이해하며 현대미술에 대해서도 이해한다.</p> <p>-20세기 말 최근의 미술사조는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미술은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다. (폭넓은 자유)</p> <p>-수업을 정리하고 마친다</p>	전체 학습	ppt자료	-학생이 잘 이해했는지 주지시키며 수업을 마친다.	
----	---------------------	---	--	-------	-------	-----------------------------	--

### 5) 평가 관점 및 기준

#### 가. 평가관점

1.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올바르고 진지한가?
2. 20세기 현대미술의 특징인 추상회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느낌을 말할 줄 아는가?
3. 각기 다른 재료의 특징, 표현기법 등을 이해하고 있는가?
4. 추상회화의 알려진 명작들을 감상하고 그 예술적 가치를 말할 수 있는가?
5. 작가별 다른 추상미술을 비교하고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말할 수 있는가?

6. 자료수집, 감상문 작성 및 발표에 적극적인가?

나.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

1. <표-4> 추상미술의 이해 감상수업 평가기준

평가항목	상	중	하
관심과 이해태도	현대미술의 특징인 추상회화의 이해와 감상에 있어서 제 나름의 소감 발표에 적극적이다.	감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나 추상회화의 이해와 감상이 미흡하거나 수동적이다.	감상에 관심은 가지나 추상회화의 이해와 자신의 느낌과 의견을 발휘하는데 내용이 없거나 소극적이다.
감상문 작성	자신이 느낀 그대로 성실하고 진솔한 감상태도와 생기 있는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었다.	감상문을 작성하는 양식이나 태도는 갖추었으나 자신의 입장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의식이 약하다.	감상문을 작성하는 태도가 부실하고 자신의 입장이나 느낌이 없다.

2. 평가내용

- 1) 추상미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 2) 추상미술의 발생과정을 이해하였는가?
- 3) 추상미술의 전개과정을 이해하였는가?
- 4) 각 작가의 제작의도와 제작방법을 숙지하고 이해하였는가?
- 5) 감상 후, 작가의 느낌을 잘 정리 하여 발표하였는가?
- 6) 작가간의 작품을 비교, 평가할 능력이 있는가?
- 7) 학습욕구는 증가하였는가?

다. 형성평가

1. 추상회화(비구상미술)를 정의한다면?

-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상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의 본질이나 감흥을 표현하기 위해 함축과 생략 혹은 인간의 내면의식을 그리거나 표현하는 미술

2. 추상은 크게 차가운 추상과 뜨거운 추상으로 나뉠 수 있다. 대표적인 화가는?

- 차가운 추상 : 몬드리안, 기하학적이며 이성중시
- 뜨거운 추상 : 칸딘스키, 잭슨폴록, 감성중시

3. 점, 선, 면, 색채 등 순수한 조형 요소만으로 표현한 그림을 무엇이라 하는가? -추상화

4. 다음 중 소재와 표현 기법이 가장 자유로운 그림은? (3)

- ① 풍경화      ② 정물화      ③ 추상화
- ④ 인물화      ⑤ 판화

5. 다음 추상 표현이 아닌 것은? (2)

- ① 종이를 찢거나 오려 붙여서 질감 효과를 나타낸다.
- ② 아름다운 자연을 재현
- ③ 자유분방한 선과 색으로 표현
- ④ 우연히 만들어진 형과 색으로 표현
- ⑤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

〈표 5〉 감상보고서

일시	년 월 일 요일 교시						기록자	
작품제목							작가명	
관찰내용	주제							
	재료							
	표현기법							
	조형요소	점	선	면	형	색	명암	질감
	조형원리	통일	균형	율동	대비	변화	반복	조화
제작의도								
나의 감상								
다른 사람의 생각								

## V. 결 론

미술교육은 표현과 감상활동을 통해 미적 정서로 형성된 조화롭고 온전한 인격체인 심미적인 인간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추상미술교육은 현대미술을 이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추상미술의 다양한 측면, 즉 생산과 사과의 변형,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한 직접, 간접적 체험을 통해 그 시대의 중심에서 다양한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 줄 수 있다.

우리나라 중등 미술교육은 대다수 학생들의 잠재된 소질을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삭막한 입시 현실 속에서 최근 무엇보다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학교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은 다양한 교과와 선생님들의 지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과가 미술, 음악, 체육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교과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 교과의 시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선택과목으로 학생들이 미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미술교육환경 속에서 미술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술교사는 전문적 지식의 전달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사과의 다양성을 키워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충실하면서 조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미술교과는 활동적이고 창의성을 다루는 과목으로써 각자의 개성과 독창성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조형성을 탐구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추상회화의 이해와 감상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추상회화를 감상 할 수 있는 눈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현대미술과 우리생활 속의 추상을 이해하고

소비하는 능력을 길러 전인적인 인간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미술 감상교육은 미술작품과 관련한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학생들이 미술 작품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작품에 대한 느낌이나 판단을 자연스럽게 말 할 수 있는 감상교육 능력을 키워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적 안목의 신장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문화에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감상교육은 필요하다.

우리의 삶속에 미술이 있지만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삶속에 다른 관점으로 미술은 항상 존재해 왔다. 이러한 미술을 이해 할 수 없다면 삶의 일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때문에 분명한 미술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미술교육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미술교육을 받는다고 모두가 창조적인 제작활동을 할 수는 없으나 감상자로서 작품에 대한 감상과 비평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교육에서의 ‘감상’은 미술가를 생산하는 생산적 교육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상에 대한 이해는 낫설지만 기초 조형에 대한 이해부터 알아간다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뜰 것이다. 학생들에게 추상회화는 아직까지 막연한 이해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모든 사물을 조형요소와 원리로써 인지하는 새로운 시각의 방향과 다양한 방법의 추상회화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창의적인 추상표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주변의 사물을 창조적 시각으로 보게 되고 새로운 미의 발견 및 미적 감각 또한 향상될 것이다.

미술교육은 심미적 인간을 목표로 한다. 미술교육은 장인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장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 미술교육에서는 자연스런 예술교육은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입시와 관련된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연의 대상에서 아름다운 조형미를 발견하게 하는 일은 시급하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추상미술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현재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현대인이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사들은 사명감을 갖고 올바른 추상미술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야하며,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상자료 개발과 전문지식 습득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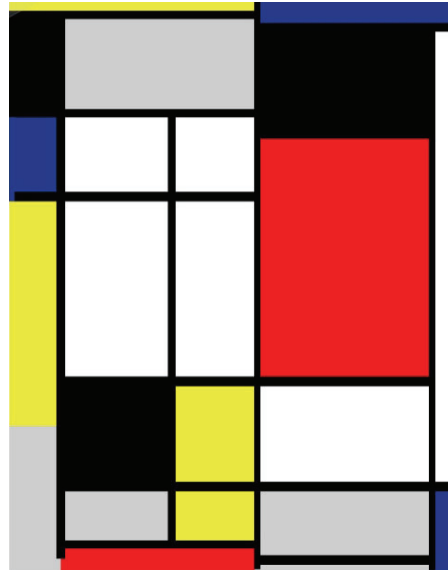
[그림-1] 칸딘스키, 구성 No.8 (140×201cm/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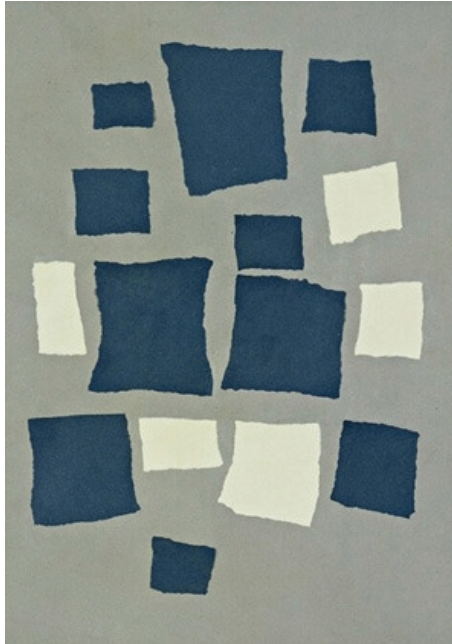
[그림-2] 칸딘스키, 즉흥 No.31  
(145×119.7cm/1910)



[그림-3] 샘 프란시스, 정열  
(183×183cm/1990)



[그림-4] 몬드리안, 빨강, 회청색, 노랑, 파랑의 구성  
(75×65cm/1925)



[그림-5] 한스 아르프, 우연의 법칙  
(48.6×34.6cm/1916-17)



[그림-6] 장 포르티에, 인질의 머리  
(27×22cm/1940)



[그림-7] 잭슨폴록, 넘버26A (205×121.7cm/1948)



[그림-8] 아돌프 고틀리브, 연금술사  
(711×908cm/1945)

## 참고문헌

### 단행본

- 교육부,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7.
-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7.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미술1」, 서울: 교학도서 주식회사, 2001.
- 김정희, 「미술교육 입문」, 서울: 형성출판사, 1998.
- 김재복, 「미술과수업과 평가」, 서울: 일지사, 1977.
- 김춘일, 「미술교육론」, 서울: 흥성사, 1984.
- 김해성, 「현대미술을 보는 눈」, 서울: 연화당, 1991.
- 계간미술편저,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1987.
- 로웬펠트 브리테인,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서울: 미진사, 1998.
- 문재부, 「교사용 지도서」, 서울: 국정교과서, 1990.
- 멜 구딩, 「추상미술」, 서울: 열화당, 2003.
- 박휘락,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서울: 시공사, 2003.
- 안나모진스카, 「20세기 추상미술의 역사」, 서울: 시공사, 1998.
- 오광수, 「이야기 서양미술. 서양미술 이야기」, 서울: 정우사, 1996.
-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서울: 일지사, 2003.
- 오병남, 윤자정, 「현대예술 철학의 흐름」, 서울: 예전사, 1996.
- 유재길, 「추상화 감상법」, 서울: 대원사, 1993.
- 이규선, 「미술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2001.
- 이윤구, 「미술실에서 미술관까지」, 서울: 두산동아, 1992.
- 이일, 「현대미술의 시각」, 서울: 미진사, 1985.
- 이일, 「서양미술의 계보」, Editions API, 1992.

-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1996.
- 정병관, 「현대미술의 동향」, 서울: 미진사, 1987.
- 최병식, 「미술의 구조와 그 신비」, 서울: 예술과 비평사, 1992.
- 캐를 스트릭랜드, 「클릭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2000.
- F.프란시나&C.해리슨, 「현대회화의 원리」, 서울: 미진사, 1991.

### 학위논문

- 권여현, “중학교 미술에서 추상회화의 이해와 감상지도방안에 관한연구” ,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김래원, “중학교 미술교과 과정에서의 한국화 감상법 연구-추상회화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김현정, “미니멀 조각의 특성연구” ,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신혜원, “ICT를 이용한 중등 미술 감상연구-한국 추상회화를 중심으로”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안선자, “중학교 미술교과서 감상단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정재, “미니멀리즘 조형방법론을 통한 지역성 표현에 관한 연구” ,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이청자, “중학교 추상화 지도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학술지

- 노부자, 중학교 미술교과서의 구조 고찰, 한국조형학회, 1991.

# ABSTRACT

## **Teaching Methodology to Further the Appreciation of Abstract Paintings in Middle School Art Class**

Choi Eunhee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best to nurture middle school students to bette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abstract paintings. In modern art, abstract art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However, many art viewers feel distant when they look at unrepresentative artworks created from the 20th century onwards. Considering this reality, helping students understand abstract art has a very important role to play in the art curriculum.

This study tries to find a way to help students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formative beauty of modern art by elaborating more practical and methodical approach to art appreciation. If successful this approach will provide more effective art education and lead to an enhanced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abstract painting in the classroom.

Middle school is a period when students begin to develop abstract thinking and to recognize social issues. Considering this reality, art

teaching methods should take a different tangent. For this reason I took the following approaches to teach abstract paintings more effectively.

Firstly, I traced the development of abstract art to help understand its concept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abstract painting education based on curriculum goals and methodology.

Secondly, I looked at the necessity and goal of the teaching methodology in art appreciation education in middle school art classes and how to help students understand abstract paintings and why that is impor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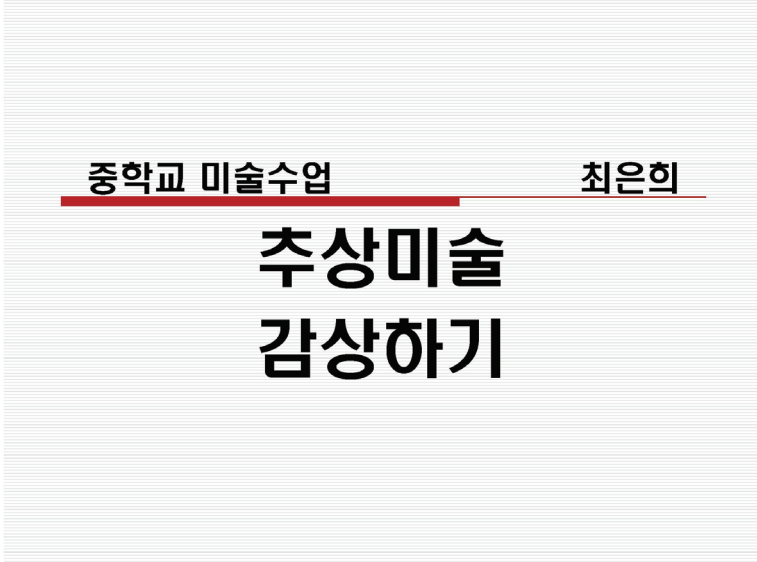
Thirdly, I tried to establish a teaching plan that allowed students to think uniquely through creativity and diversity.

The goal of art is to reveal creativity based on free will and unlimited imagination. Unlike other subjects, art pursues creativity and diversity rather than universality or generality. It is important to help students cultivate an aesthetic eye and formative ability. Most importantly the class should be enjoyable and fun. Developing the critical thinking ability that enables students to make right choices and selective acceptance from the influx of different visual formats can be more effectively accomplished through an art appreciation activity than an art expression activ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appreciate abstract paintings effectively and takes an historical approach to the concept and expressive method of various abstract paintings and by so doing

concludes that abstract paintings are not limited to one individual. By understanding the abstract painting world students' thinking and lives will escape their limited frame of reference as they look at objects with more creative eyes, discover new beauty and develop their aesthetic sense. Based on this ability they will have improved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modern art and make art a way of life thereby enjoying a more enriched life.

# 참고자료



## 교수-학습 계획

교과명	중학교 감상영역	학년·학기	중학교	책수(출판사)	미술교재
단원명	추상회화 감상하기			차시	1 / 4
학습주제	■ 추상회화의 흐름을 알고 추상미술을 감상하자.				
학습목표	추상회화를 비교감상하고 작품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한다				
학습환경	미술실			활동유형	학습조직
교수-학습 활동	[도입]	1. 추상미술에 대한 개념 설명후 학습동기유발 2. 학습 목표 제시 하기		정보안내	전체
	[전개]	1. 추상미술 개념과 흐름 알기. 2.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추상회화 이야기해보기. 3. 칸딘스키의 작품을 감상하고 다른 작품과 비교감상. 4. 몬드리안의 작품을 감상하고 다른 작품과 비교감상. 5. 잭슨폴록의 작품을 감상하고 다른 작품과 비교감상.		정보분석 정보탐색	
	[정리]	1. 공부한 내용 정리하기 \ 자신의 생각하는 추상미술 정의 내려보기 \ 다양한 추상미술 감상해보기 \ 비교감상후 추상미술 이해하기		정보안내	전체
	학습자료	다양한 추상미술의 그림			
		준비물	교과서, 필기도구, 감상지		

## 학습목표

---

- \* 추상미술의 개념과 흐름을 알아본다.
  - \* 다양한 작가의 추상미술을 감상하고 비교해본다.
  - \* 추상미술을 이해하고 현대미술을 이야기 해본다.
- 

## 추상미술이란..?

---

### \* 넓은 의미의 추상미술?

사물을 비재현적인 요소로 왜곡, 변형시켜 표현하거나 작가의 새로운 기법을 표현하는 것.

### \* 현대사회의 추상미술?

영상매체나 미술관,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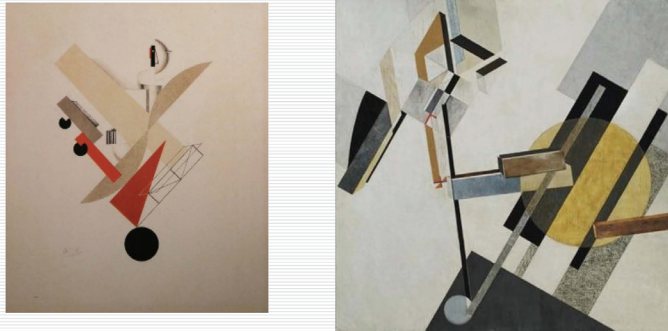
## 1. 칸딘스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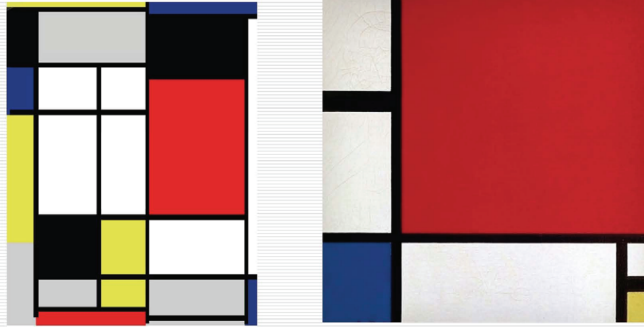
## 2. 엘 리치스키

---



### 3. 몬드리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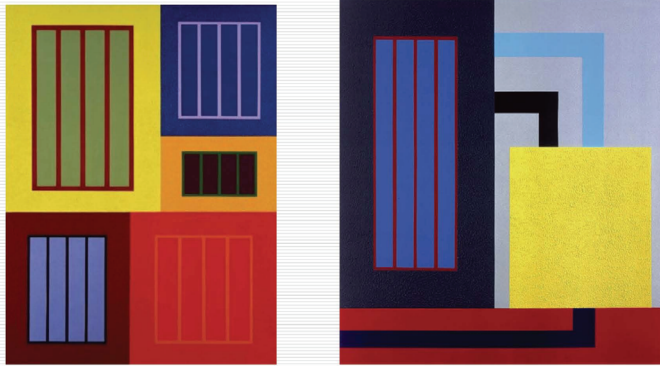
### 4. 몬드리안의 나무연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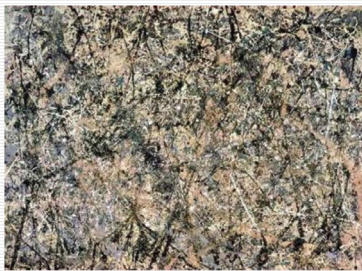
## 5. 피터 핼리

---



## 6. 잭슨 폴록

---



## 7.알베르트 윌렌

---

